



불교총지중

총지중은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통해 참 대승의 정신을 구현하는 생활불교 종단입니다.

총지중보

총기 48년
2019년 03월 31일

월간 발행

www.chongji.or.kr

창간년도 총기 24(1995)년 10월 16일 등록번호 : 강남 라00944호 발행인 : 인선(강재훈)

The Chongji News

구독문의 02-552-1080 불기 2563년 제 233호



불교총지중 통리원에서 교계 기자들과 취임 간담회를 갖는 제19대 통리원장 인선 정사

창종 반세기 맞아 재도약 원년 선포

“밀교홍포와 중흥의 발판을 마련하겠습니다.”

“창종 반세기를 맞이하여 우리 종단 제19대 집행부는 핵심 사업과 정책 과제를 통해 불교총지중의 재도약을 위한 마중물의 역할을 하려 합니다.”

불교총지중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지난 3월20일 불교계 기자들과 취임 간담회를 갖고, △창종 50주년 종단 기념 책 발간 및 출판회, △창종 중흥 정책, △신규 교화지 개척 및 사원 재정비, △승직자 심화 교육 강화 등 ‘4대 정책사업’과 △정각사 특약전 헌공 불사, △법성사 헌공 불사, △제10회 국제 재가 불자 대회, △제13회 경로잔치, △총지중 교도 수계법회, △제30회 청소년 어린이 법회(바른 인성 프로그램), △사회복지시설 확충 및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7대 핵심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졌다. <관련 질의응답=2면>

기자들과 처음 만난 자리에서 인선 정사는 “선대 스승들과 교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밀교종단에 대한 불자 여러

분들의 관심과 애정이 담겨져 있는 그 모든 인연들에 대해 감사드리는 사업을 전개하겠습니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대신했다.

또 인선정사는 정책 과제와 핵심 사업 외에도 가감 없는 생각과 의지를 피력했다. 수계 제도의 대폭 개선에 대해 뜻을 내비쳤다. 줄곧 1회로 그치던 수계 행사를 올해부터는 4단계로 늘린다. 그동안 총지중은 7년 이상 신도에게만 수계를 해오던 것을, 오는 10월 수계 대법회 때부터는 개선된 4단계에 따라 종도들의 가사 등을 구분한다. 10년차, 20년차, 30년차, 40년차 등 가사만 봐도 수행과 수행 이력을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체계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외에도 2017년까지 진행한 통일음약회도 지난해에 이어 앞으로 부산 정각사와 단위사찰에서 종도들의 화합을 위한 문화 행사로 탈바꿈 시킬 계획이며, 종단 수익 사업을 강화시켜 현재 승직자들의 처우개선

에도 힘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또 인선정사는 승직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승직자 교육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교육을 통해 교상과 사상을 전수하여 종단의 중지와 중흥을 확립, 이를 토대로 불교총지중의 미래를 여법하게 만들어 간다는 계획이다.

“종도들께서 회사하신 소중한 보시는 사회로 돌려드려야 합니다. 종단의 수익 사업으로 종단의 운영은 자력으로 이뤄내고, 사회적 약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이타의 종단이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이날 기자 간담회는 BBS불교방송, BTN불교TV 등 교계 방송국을 비롯 금강불교, 밀교신문, 법보신문, 불교닷컴, 불교저널, 불탑신문, 우리불교, 주간불교, 현대불교(가나다 순) 등 불교계 기자들의 대거 참여로, 불교총지중 새 집행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관심을 나타냈다.

박재원 기자

총기 48년, 스승심화 상반기 교육 실시

전국 교구 교화스승 대상, 3개월 간 총 6차 시행

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교육원장:하령)에서 시행하는 스승심화 상반기 교육이 지난 3월 18일 통리원에서 열린 서울 경인, 충청전라교구 교화스승 교육을 시작으로 부산경남, 대구경북 교구는 정각사에서 오는 6월 27일까지 총 6차에 걸쳐 진행된다.

금번 심화교육은 종령 범공 대중사의 ‘계초심학인문’과 정인화, 범상인 전수의 ‘교화경험담’, 범수연 전수의 ‘종조법설집’의 내부강사 강의와 외부 강사인 동국대학교 서윤길 명예교수의 ‘밀교’ 강의로 이루어진다.

첫날 강의에서 범공 대중사는 ‘계초심학인문’의 법규를 인용해 “늘 초발심을



3월18일 범공 대중사의 첫 강의로 스승심화 교육이 시작되었다.

잊지 말고, 계행의 참뜻을 되새겨 부처님의 말씀만을 의지해야 한다.”면서 “항상 하심하고 화합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3차와 4차 교육은 전국 교구 교

화스승 전체가 통리원에서 1박2일 간의 집중교육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이를 계기로 스승들의 교화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단 불사법요 통일과 재정비 나서

불사법요위원회, 「종조법설집」 연구모임도

종단의 불사법요를 새롭게 정비하고 『종조법설집』을 연구하는 불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불사법요를 관장하는 불사법요위원회(위원장:밀교연구소장 범경 정사)가 지난해 10월 발족되어 금년 2월 26일 부산 정각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는 위원장을 비롯하여 9명의 위원과 특약전이 마련된 11개 사원의 주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으며, 불사법요위원회의 활동방향과 연구과제, 불사법요의 통일과 재정비, 특약전 운용과 불사의식 개발, 종단 교상과 사상의 재정립 등이 주요과제로 다루어졌다. 한편 종단의 밀교연구소는 지난 3월 13일 부산 정각사에서 『종조법설



불사법요위원회 제1차 회의가 지난 2월 26일 부산 정각사에서 개최되었다.

집』을 연구하는 모임을 개최했다. 이날 모임에서 『종조법설집』가운데 「교상과 사상」편을 중점적으로 다루었으며, 종조님의 가르침을 분석하고 논의하는 시간

을 가졌다. 모임을 매월 개최하여 『종조법설집』을 심도있게 연구해나갈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금년말 『종조법설집』을 새롭게 발간할 예정이다.

종/조/법/어

오래지은 선업과는 그 복보도 장원하고
장원하게 지은악은 그 재앙도 오래니라

지면안내

3면 사회복지재단 힐스어린이집 위탁, 정각사 자비회 장학금전달 6면 운천사 사원탐방 9면 동해중입학식



제93회 춘계강공회

교화와 종단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춘계강공회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오니 전국 스승님께서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총기 48년 4월 17일(수요일) ~ 18일(목요일)

장소 불교총지중 통리원

대상 불교총지중 전국 사원 승직자

불교총지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로 25길 35(역삼동) | T. 02)552-1080~1083 | F. 02)552-1082 | www.chongji.or.kr



교계 기자들과 질의응답 중인 통리원장 인선 정사

통리원장 인선정사 취임 기자회견 창종 50주년 맞아 기념 책 발간 전국 주요도시에 포교 거점 마련

정 법안들이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핵심사업 과제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향이 높아 보인다. 현재 운영되는 사회복지 시설의 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듣고 싶다. <밀교신문=이재우 기자>
현재 서초, 강남의 어린이 집 5곳과 성남 1곳의 어린이 집을 위탁운영하고 있고, 만다라 요양원을 운영 중이다. 보다 젊어진 총지종 19대 집행부는 한국사회의 고질적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의 시대에 더욱 사회적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하고자 한다. 특히 노인자살률이 심각한 지경에 이른 자금의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의 짙은 그림자다. 이에 불교총지종은 격년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로잔치를 통해 노인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것이며, 보다 심층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관심의 연장에서 사회복

그 이후는 스페인, 인도네시아, 태국, 일본 등을 거쳤고, 2020년 제 10회 대회는 다시 우리나라에서 개최하는 것이다. 현재 불교총지종 중앙교육원 원장 화령정사가 국제 재가 단체(ILBF)의 회장을 맡고 있다. 약 20여 개국의 불교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의견을 나누고 우정을 다지는 자리다. 특히 이번 대회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승속을 초월한 생활불교의 비전을 제시할 것이다. 재가 종단으로서 다양한 재가불교 단체와 연대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18대 성과와 19대를 새롭게 이끌어 나가기 위한 통리원장으로서의 신념과 의지를 밝혀주시기 바란다. <현대불교=김주일 기자>

총지종 사원 중 유일하게 사대문 안에 위치한 관성사를 신축한 것과 부산 정각사 증축 불사를 마무리하면서 지역인 포교의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킨 것을 가장 큰 보람으로 생각한다. 기도 도량 건립과 함께 승속들의 집중 수행 및 심화 교육을 통해 한국 밀교의 전통과 맥을 잇는 성과를 거둔 것도 쾌거다. 부처님은 못 고통받는 존재들을 위해 깨달음의 역사를 펼치셨다. 이렇듯 한 사람의 역사적 사명은 세상을 바꾸어 나가는 힘이 된다. 불교총지종의 발자취 또한 부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개인과 가족, 국가와 세계를 위해 깨달음의 기쁨을 넓히기 위한 여정이었다. 이는 한국밀교의 불을 다시 밝히신 종조 원정 대성사의 뜻이기도 하다. 우리 종단 제19대 집행부는 이러한 뜻을 새기며 창종 반세기를 맞아 재도약의 원년(元年)이 되고자 한다.

정리=박재원 기자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사업 확대 정체성 유지, 종헌종법 합리적 개정

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핵심 사업과 정책 과제 중에 종헌종법 개정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있으며, 개정 시기는 언제가 되겠는가. <BBS불교방송=류기안 기자>

48년간 종헌종법의 개정이 거의 없었다. 불교총지종의 정체성을 지켜나가면서, 현실에 맞는 합리적인 종헌종법의 개선을 통해 시대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이다. 나아가 대승적 차원에서 사회적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고민하며 이루어 질 것이다. 이미 지난 18대 집행부 시절부터 통리원장 산하에 종헌종법 개정위원회를 설치해 종단의 정체성은 지키면서, 시대 상황과 상충되는 조항들을 개정하려 작업 중에 있으며, 현재 새로운 종헌종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승단 내부의 토의 등 절차를 고려하여, 내년 10월 중회에는 새로운 개

지시설들을 확충하고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전반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다.

2020년도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 불자대회는 어떤 행사이며,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를 표방하는 총지종에는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을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BTN불교TV=이동근 기자>

이 행사는 총지종이 '불교의 생활화, 생활의 불교화'란 취지로 재가 불교 발전을 위해 만든 것이다. 1회 대회서 5회째까지는 우리나라에서,



통리원장 인선 정사와 총무부장 원당 정사, 교정부장 승원 정사가 참여한 가운데 교계 기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불교총지종 통리원장 인선정사는 3월 20일 불교총지종 제19대 통리원장 취임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을 갖고, 향후 종단의 운영방향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다음은 통리원장과 기자들이 나누는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이다.

통리원장 임기 내 창종 50주년을 맞이한다. 50주년을 맞이하는 소회와 기념사업에 대해 듣고 싶다. <우리불교=김원우 기자>

올해는 창종 48년으로 창종 50년을 이제 2년 앞두고 있다. 창종 50주년 창종 기념 책 발간 및 출판회를 계획하고 있다. 내년 초에 총지종 50년사 발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승단과 신도가 함께 손잡고 선대 스승님들의 창종 정신과 반세기 종단 역사를 재정립할 것이다. 이를 통해 잘된 일에 대해서는 함께 축하하고, 잘못된 일은 반면교사로 삼아 종단 발전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승속의 구분 없이 모두 동참할 수 있도록 수행하여 결속력을 다질 계획이다. 자리아타의 대승 정신을 일상생활 속에서 실천해 온 불교총지종의 회고와 성찰은 급속하게 변화해 가는 시대의 가치를 불교적 가치로 선도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 진행 중인 정각사, 법성사 불사는 정책 사업 중 하나인 신규 교화지 개척 및 사원 재정비의 일환으로 보인다. 진행 과정과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금강신문=윤안수 기자>

불교총지종은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져 있는 종단이다. 현재 진행 중인 정각사, 법성사 불사는 그러한 전통과 현대의 어우러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불교총지종의 대표사찰인 정각사 본당 건물 2층에 건립되는 득락전은 본존불에 아미타부처님, 협시불

일본 밀교 '진여원' 한국대표, 통리원 방문 2020년 재가불자대회 참가, "교류 높이자"



왼쪽부터 총무부장 원당 정사, 진여원 정경 대표, 통리원장 인선 정사, 광수사 주지 무원스님, 재무부장 덕광 정사

일본불교 중 밀교 종파중의 하나인 '진여원' 정경 한국대표가 불교총지종 통리원을 방문해 통리원장 인선정사를 친견하고, 종단 간 교류 활성화를 제안했다. 금번 방문은 지난 3월 18일 천태종 대 전 광수사 주지 무원스님의 주선으로 진

행되었으며,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 내년 개최되는 국제재가불자대회 참가 및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진여원은 일본의 밀교 계통의 신도신소가 창립한 신흥종교 단체로, 국내에는 현재 4천여 명의 한국 신도가 있다.


미륵사지전시관, '익산박물관'으로 재탄생 도립에서 국립으로, 히든뮤지엄으로 설계



도립으로 운영되던 전북 익산에 위치한 미륵사지유물전시관이 국립으로 전환함에 따라 익산박물관으로 명칭을 바꾸고 새롭게 태어난다.

기존 전시관 바로 앞에 새롭게 건립 중인 익산박물관은 올해 8월 준공하며, 연말 시험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관한다. 박물관은 사적지 내에 위치한 점을 감안해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게 히든뮤지엄(숨은박물관)으로 설계됐다. 국립익산박물관이 개관하면 20년 동안 보수 정비를 거쳐 새롭게 선보이는 국보 제11호 익산미륵사지 석탑과 더불어 백제의 우수한 문화유산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익산박물관은 미륵사지 석탑에서 출토된 '사리장엄구(보물 제1991호 사리내외호, 사리봉영기, 청동합 등)'를 비롯하여 국보 제123호 '왕궁리오층석탑 사리장엄구' 등 익산문화권의 주요유물 3만 5000여 점을 보유할 예정이다. 정상이 익산박물관장 직무대리는 "익산박물관은 13번째 국립박물관"이라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익산역사지구의 역사와 문화를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조망하는 익산문화권 대표 박물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본 치과의원

건강한 치아로 당당한 미소를 찾으세요

🦷
임플란트
스케링
미백
충치
풍치

국회 정각회, 종단협회장단 초청 신년법회

12대 회장에 강창일 국회의원 취임



국회 정각회(회장 강창일)는 지난 2월 21일 오전 국회본청에서 신년법회를 겸한 제12대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불교총지종 통리원 원장 인선 정사가 초청된 가운데, 한국불교종단

협의회 회장단, 문희상 국회의장과 정각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정각회장 취임을 축하했다. 또 청와대불자연합회 장 윤종원 경제수석, 김상규 한국공무원 불자연합회장,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등

불교계 주요 재가 신행단체장들도 축하를 전했다.

지난해 12월6일 정각회 정기총회에서 다시 회장으로 추대된 강창일 의원은 19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장을 맡은 후 2년 만에 재취임했다.

앞서 강창일 의원은 17대 국회 등원 후 정각회 재건에 앞장섰고, 부회장으로 국회불자모임을 지원하고 정각회장과 명예회장을 지냈다.

한편 20대 국회 후반기 정각회는 강창일 회장을 필두로 전임 주호영 의원이 명예회장, 정갑윤 의원이 고문, 이원욱 의원, 이진복 의원이 부회장, 이현승 의원이 간사장, 오영훈, 김순례, 신용현 의원이 간사, 신경민, 이은재 의원이 감사로 맡기로 했다.

정각사 자비회 장학금 전달식 자성일에 열려

동해중 졸업생 2명, 고등학교 학비 전액 지원



부산 정각사 자비회(회장:백일숙)의 장학금 전달식이 총기 48년 3월 10일 자성일에 정각사 서원당에서 열렸다.

정각사 주교 도현정사, 자비회 백일숙 회장과 회원들을 비롯, 동해중학교 탁상달 교장과 교직원, 정각사 교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이번 장학금 수여식에서는 2019년도 중립학교인 동해중학교

를 올해 졸업, 고등학교를 진학하는 최강현, 최성규 학생 2명이 고등학교 3년 과정의 학비를 자비회가 전액 지원하는 장학증서를 받았다.

백일숙 회장은 전달식에서 "정각사 보살님들의 보시금을 모아 장학금을 수여하는 만큼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며, 두 학생들의 대학 진학 시 지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최강현 학생은 "도움 받은 만큼 열심히 공부해서 세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하였으며, 최성규 학생은 "경찰공무원이 되어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최성규 학생의 아버지는 "몇년동안 불교경전을 열심히 읽었는데 이렇게 좋은 소식을 받게 되어서 부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며 기쁨을 전했다.

한편 최강현, 최성규 학생과 그의 가족들은 6개월에 한번씩 정각사에서 만남을 이어가기로 하였다.

정각사 자비회 장학금은 동해중학교 장학선발위원회가 해마다 불교반 학생 중 불심이 깊고, 타에 모범이 되는 학생들 중 2명을 추천하여 선발된다.

제2기 총지종 감수 위원회 출범

종지와 교상에 부합하는 불교홍포 다짐



제2기 총지종 출판물 감수위원회(위원장: 교정부장 승원정사)가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3월 12일 총지종 통리원장 인선 정사는 서령정사를 비롯한 총 7명의 감수위원을 위촉하고, 위촉장을 수여했다. 감수위원회는 종단 홍보물 및 경전과 불사법요, 위드드라마, 총지종보 등의 일체 인쇄물이 종지와 교상에 부합하여 발간되도록 그 내용의 검수를 맡고 있다.

금번에 위촉된 감수위원은 서령 정사, 남해 정사, 묘원화 전수, 지현 전수, 덕현 전수, 보현 전수, 자성 전수 이상 7명이다.

한편 감수위원회와 총지종보 교도기 자단으로써 각자 사원에서 역할을 수행 중인 전국 통신원이 함께하는 상반기 워크숍이 오는 4월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문경 STX리조트에서 실시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감수위원회와 통신원들 간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이해를 같이 하고, 종보와 위드드라마 등 출판물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또 '기사 잘 쓰는 통신원 되기', 사진찍기 요령 등 실무 교육도 진행될 예정이다.

복지재단, 구립 '힐스어린이집' 수탁운영

새 원장 임명 및 감사패 수여, 사회적 회향 최선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인선 통리원장, 이하 복지재단)이 강남구 구립 어린이집 위탁운영체 공모에 참여해 '힐스어린이집' 수탁운영체로 선정되었다.

강남구 자곡동에 위치한 '힐스어린이집'은 지난 2015년 개원하여, 92명 정원인 시설과 보육 교직원 18명 규모의 대단위 어린이집이다.

지난 2월20일 강남구청에서 실시한 구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 심의에 참여한 복지재단은 부처님 자비사상의 사회적 회향을 위해 최선의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공모에 적극 임하였으며, 오는 2024년 2월까지 총 5년간 위탁운영을 맡게 되었다.

이를 위해 복지재단은 3월12일 '힐스어린이집' 광방은 원장을 초청해 임명장을 수여하였으며, 같은 날 그동안 복지재단 위탁 어린이집 운영에 헌신적인 노력을 해온 '초록어린이집' 황화성 원장과, '일원어린이집' 하재희 원장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이로써 복지재단은 이번 힐스어린이집을 비롯해, 서초구립 잠원햇살어린이집, 포레스타7단지어린이집 등 불교의 불모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 서초 지역에 총 다섯 곳과 성남시 양지동 제1복지회관을 포함 총 여섯 곳의 영유아 복지시설을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복지재단, 총기48년 첫 정기이사회

2018년도 결산 심의, 새 상임이사에 원당 정사

총기 48년 불교총지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인선 통리원장, 이하 복지재단) 제1회 이사회가 3월19일 통리원 1층 회의실서 열렸다. 인선 통리원장을 포함한 총 8명의 이사 중 6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이사회에서는 임원 변경의 건, 2018년도 결산 심의의 건이 대표 안건으로 상정되었다. 복지재단 당연직 이사인 우인 정사의 사임에 따라, 현 총지종 사 주교이자 18대 통리원 총무부장 원당

정사가 새로 선임되었다. 이날 이사회에서 이사장 인선 통리원장은 지난해 복지재단과 이사회의 활동에 노고를 치하하고, 신규 복지 후원 사업에 대해서도 지혜와 마음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재단은 올해로 설립 20주년을 맞이하며, 부처님의 참사랑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후원과도 함께 운영되고 있다.

대구, 경북 교구회의 개천사에서

새 교구장에 건화사 법상 정사



경북 교구회의가 3월12일 개천사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법공 종령님을 비롯한 교구 기로스승님과 새로 발령을 받은 개천사 법등 정사, 인덕심 전수, 제석사 시정 정사, 원만원 전수, 수인사 법일 정사, 자행정 전수가 참여하여 상견

례를 하였다. 안성 정사가 대전 만보사로 발령 받음에 따라 공석이 된 교구장 선출이 있었으며, 그동안 교구 총무직을 맡아 온 경주 건화사 법상 정사가 교구장으로, 수계사 현일 정사가 총무로 선출되었다.

불교총지종 정각사 특락전 아미타3존불과 1,315존 원불 조성불사

정각사에서 조성 중인 특락전 불사는 아미타 3존불과 1,315존 원불에 불자들의 염원을 담았습니다.

선망 부모, 조상 영식 왕생성불 발원불, 일체 소원성취 발원불로 재난소멸과 소원을 이루세요.

2019년 4월 불사 완공 예정

불교총지종 정각사



칼럼 지혜의 눈



법상인 전수의 總持法藏

정진

종조님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월초 불공과 새해불공 등 여러 불공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특별한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불공을 하려 와야 합니다. 중요하게 서원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분정진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가오고 또 지나갑니다. 스물 네 시간마다 날짜가 늘 바뀌니까 시간이 지남에 대하여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으며 내일은 어제와 같은, 비슷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새롭게 보내고 더 나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계획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 한 달이 가고, 일 년이 가서 변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해가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지난해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켜보고 반성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종조님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여, 월초 불공과 새해불공 등 여러 불공의 기간을 효율적으로 정비했습니다. 특별한 기간으로 정해진 만큼, 그 기간 동안은 평소와 다른 마음가짐으로 불공을 하려 와야 합니다. 중요하게 서원할 일이 생긴다면 우리에게도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분정진입니다.

하루하루는 하루도 빠짐없이 다가오고 또 지나갑니다. 스물 네 시간마다 날짜가 늘 바뀌니까 시간이 지남에 대하여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과 같고 오늘도 내일과 같으며 내일은 어제와 같은, 비슷한 날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면, 어제보다는 오늘을 더 새롭게 보내고 더 나은 생각과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새로운 각오와 계획 그리고 나아지는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보낸다면, 그 하루하루들이 쌓여 한 달이 가고, 일 년이 가서 변화라는 것이 생깁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한 해가 바뀐다는 것은 상당히 큰 변화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때는 지난해에 이루지 못했던 것들을 돌아켜보고 반성도 하는 기회를 가져야 합니다. 변화라는 것은 자연의 이치와 같기 때문입니다.

정진 중에는 악업을 짓지 말라고 하였습니 다. 악업을 짓지 않으면 행들은 자연스럽게 선행으로 이어질 것 입니다.

현교에서도 불공이라는 말을 씁니다. 현교에서의 불공이란 부처님 전에 공양을 가져가서 절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서원이 있어 간절히 매달리며 하는 것은 기도라고 합니다. 이와 다르게 총지종에서 흔히 말하는 불공이란 현교에서의 기도와 같습니다. 간절한 소망으로 매진하는 것을 우리는 불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성취하려면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명심보감에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정성이 가득하여야 하늘이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간절해야 부처님도 감동을 하여 응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총지종 서원당에는 불상이 없기 때문에 부처가 없는 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외관상으로는 그렇지만, 사실 이는 진실이 아닙니다. 현교와 비교를 해볼까요? 현교에서는 대행전에 불상을 모십니다. 이를 등상 불이라고 합니다. 부처님과 모양을 비슷하게 만든 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생들은 어리

변화의 노력은 곧 '수행'의 과정 불공은 간절한 소망으로 매진해야

지족한다는 것은, 현재 상태에 만족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불공을 할 때에는 지나친 욕심이나 헛된 욕심을 자제하며 늘 감사한 마음을 지녀야 합니다.

모든 요일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월요일은 보시, 화요일은 계를 지키는 날로 지계라고 합니다. 수요일은 참고 인내하는 날입니다. 목요일은 정진을 뜻하고, 금요일은 정려라고 합니다. 여기서 정려란 고요할 '정'에 생각할 '려'입니다. 마음을 고요히 함으로써 모든 번뇌를 잠재울 수 있습니다. 마음이란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으며 어딘가에 얽매어 있습니다. 가만히 자신의 마음을 한 번 들여다봅시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간에, 산만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산만한 마음을 고요히 잠재울 수 있다면, 그 순간에 지혜가 생겨납니다. 토요일은 지혜이며 일요일은 회향입니다. 회향이란, 회전 방향의 줄임말로 방향을 바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잘못된 업을 수행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이 회향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씩 꾸준히 해나간다면 우리는 큰 공덕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나쁜 일이 닦쳐왔을 때 나쁜 일의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구별이 가능합니다. 어리석은 이는 나쁜 일의 원인을 바깥에서 찾는 반면,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 안에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언제라도 어디에서라도 자기 자신을 봐야합니다. 타인을 보면서 남의 탓을 한다면 오히려 고통이 배가 됩니다.

석기도 하여, 형상이 있어야만 부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하여 불상 앞을 걸어 다닐 때에도 진짜 부처님 앞에서 걷는 것처럼 뒤꿈치를 들고 살금살금 걸읍니다. 하지만 그 불상은 진짜 부처가 아닙니다. 진짜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진리의 부처님입니다. 불상은 그저 부처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일 뿐입니다.

부처를 공경하기에 앞서 먼저 부처와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친근해 질 수 있을 지 생각해봅시다. 먼저 가까이 지내야합니다. 형식적이라도 한달에 한 번이라도 절에 나와서 본전 앞으로 가 향도 피우고 합장도 해야 합니다. 기회가 된다면 스승의 살림도 한 번 들어보아야 합니다. 또 집에 있는 경을 한 번도 들춰보지 않으면서 어찌 부처와 친근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각자의 형편이 다르고 사정이 다를 수 있겠지만, 너무 오래 결석은 하지 말고 자주 나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동참이란, 그 날 절에 나온 사람들끼리 한 자리에 앉아 함께 같은 경을 읽고 상대의 불공을 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명패만 달렁 걸어놓고, 일 년 내내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을 대신 해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복이라는 것은 내가 지어야 하는 것이기 마련인데, 남한테 대신 지어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공짜를 바라는 것이며 복이 아닙니다.

음수사원(飲水思源)을 돌아보는 4월

“원생의 마음가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음수사원” “작은 글귀 하나라도 작은 것이 작은 것 아니야”

‘4월은 잔인한 달’이라고 누가 노래했지만 그래도 봄이 되니 곳곳에 꽃이 피고 있다. 꽃이 추운 겨울을 견디어 마침내 아름다움과 향을 발산하며 행복을 선사하듯 우리네 삶도 그런 꽃을 담았으면 좋겠다. 사바세계는 참고 살아야 하는 곳이지만 이런 저런 인연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다 보면 새로운 희망의 싹을 틔워볼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어디선가 희망의 불씨를 안고 온갖 추위를 잘도 이겨내며 살아간다. 살아야 하는 나름의 이유를 만들어 내지 않으면 몹시 견디기 어려워지고 그야말로 고통의 도가니가 되기 때문이다. 다행히 우리들에게는 고통을 피하고 즐거움을 구하는 이교득락의 DNA가 갖춰져 있다고 하겠다.

유사 이래 많은 종교나 철학은 근본적으로 이교득락을 위한 목적과 연결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교득락 하는 방법이 있다.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거나 임시적인 해결만으로는 모자람이 있다. 불교가 가르치는 해탈 열반이라야 완벽할 것이라 하겠지만 보통 우리들이 성취하기에는 멀게만 느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요즘 필자는 합창단 활동에서도 활력을 느낀다. 찬불을 하다보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안정되고 심신이 편해지고 신심도 깊어지고 불보살님의 가피도 말지 않은 곳에 있음이 느껴진다. 찬불하는 모습은 보기도 좋고 스스로 동참하는 데서도 기쁨과 행복을 맛볼 수 있다. 무엇보다 봐주고 들어주는 이들이 있어서 그 느낌은 배가된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완벽한 경지를 이루기 전까지는 전혀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 전이라도 조그만 행복을 만들어 가질 수 있다. 그 행복은 내면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어서 외면에서 구하는 행복과는 거리가 있다. 또 목표가 완전히 달성되는 결과에 매이지 않고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기에 결과지향적 행복과는 질적으로 다르다.

불교가 지향하는 삶은 큰 데서만이 아니라 작은 데에서, 결과만이 아닌 과정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데 비결이 있다. 예컨대 음수사원(飲水思源) 같은 글귀 하나라도 되새기는 마음가짐에서도 행복은 시작될 수 있다. 물을 마실 수 있게 된 데 감사와 더불어 모든 이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넓은 감사와 염원의 마음이 행복을 가져다준다. 그 하나만해도 ‘잔인한 달’과는 심만 팔천리가 될 듯 싶다.

이러한 내면의 행복은 외부에서 누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으로 찾아낸 것이어서 어떤 외부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릴 수 있고 또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렇게 곳곳에서 행복할 수 있는 이유를 많이 가지다보면 항상 행복의 장에 머무를 수 있을 것이다.

염불·염법·염승 등 진리를 잊지 않는 그 마음이 우리를 드넓은 지혜의 바다에서 웃으며 헤엄칠 수 있게 해주리라 믿는다. 짧은 지식으로 알아낸 겉모양이 아닌 넓고 깊은 인연의 모습을 차차 알게 되면 그야말로 나와 남이 없는 불이(不二)의 마음, 무연대비(無緣大悲)의 부처님 마음을 닮아가게 되지 않을까 싶다. 작은 것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각자가 자신의 행복을 구가하는 듯 보여도 차츰 거기서 머무르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나와 인연한 많은 이들도 행복하지 않고는 자기만의 행복은 큰 의미가 없음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공동체의 고통을 해결하려는 노력이 때로 힘들 수 있어도 이를 행복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다.

기존에 살아오던 습관대로 사는 업생(業生)의 관성을 약화시키고 끝내려는 노력이 바로 원생(願生)일 것이다. 원생은 자발적인 수행을 통해 힘을 얻는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똑같은 사바세계이겠지만 수행하는 이는 전혀 다른 자유로움의 세계가 내면에 펼쳐지고 외면에도 구현될 것을 믿고 확언하며 살아갈 것이다.

<김봉래=불교방송 보도국 기자>

宗祖法說集

즉신성불의 길잡이 종조법설집

불교총지종 종조 원정대사의 주옥같은 생활불교 실천밀교의 진실법설

진리는 믿음을 생기게 하고 믿음은 진리를 구한다. 믿음이 높으면 진리는 깊어지나니, 그러므로 믿음은 공덕을 생기게 하고 공덕은 믿음을 더욱 깊게 하느니라.

-제3장 잠언편 p.228-



원당정사

밀교경전 읽기 23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2)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육자대명다라니의 염송을 통해서 얻는 공덕으로 삼마지를 증득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만약, 선남자 선여인이 능히 법에 의지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염송하면 이 사람은 마땅히 삼마지를 얻을 것이니라.”

라면서 육자대명다라니를 법에 따라 염송하면 지마니보삼마지등 108삼마지를 얻는다고 설 하고 있다.

삼마지는 산스크리트어 Samādhi를 음역한 것으로 원래의 뜻은 ‘한 곳에 놓는 다’는 말로써 흔히 삼매라고도 한다. 삼매란 마음을 한 곳에 정하여 움직이지 않는 상태이므로 정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되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되어서 지혜가 나타나므로 등지라고도하고, 마음이 조절되므로 조직정이라고도 하고, 또한 이러한 상태에서 법이 비로소 나타나서 즐겁게 머물게 되므로 현법락주라고도 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을 한 곳에 오로지 머물게 하여 산란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정신통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삼마지의 일반적 해석으로 밀교에서 말하는 삼마지는 ‘보리심론’에 “오직 진언법 중에서만 즉신성불하는

고로, 이 삼마지법을 설하고 모든 교 가운데 권하여 기록함이 없다.” 고 하여 진언법에서는 이 삼마지를 통해서 여래의 일체지지를 얻게 되어 즉신성불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며 삼마지의 중요성을 밝히고 있다.

삼마지는 중생들이 본래부터 지니고 있는 보리심에 안주하여 깨달음을 얻어서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경지를 체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밀교의 삼마지는 모든 사물의 인연

염송은 깨달음을 얻어 불신을 체득하는 길

을 통해서 그것에서 부처를 보고, 내가 부처임을 아는 것이다. 마음을 삼매에 머물게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의 마음으로 하고자 하는 것이니, 항상 정신을 통일하여 나와 부처가 둘이 아닌 범성불이의 경지에 머무르는 수행이다.

이것을 『대승장엄보왕경』에서는 “이 육자대명다라니는 곧 관자재보살마하살의 미묘본심이니, 만약 이 미묘본심을 아는 자가 있으면, 곧 해탈을 아는 것이다.” 라고 하여 삼마지에 들어가서 관자재보살의 본마음이며 제불보살의 본마

음인 육자대명다라니의 묘리를 알면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대승장엄보왕경』에서 설하고 있는 육자대명다라니의 지송공덕은 변재를 얻고, 지혜와 자비를 얻고, 대승보살도의 중심 실천덕목인 육바라밀다의 성취이다.

“능히 법에 의지하여 이 육자대명다라니를 염송하면 이 사람은 다함이 없는 변재를 얻을 것이며, 이와 같은 사람은 청정

한 지혜 무더기를 얻고 큰 자비를 얻게 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나날이 육바라밀다를 갖추어 원만한 공덕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여 육자대명다라니를 한자 한자를 염하면 육바라밀다의 각각 지문을 성취한다고 하고 있다.

이처럼 육자대명다라니의 염송을 통해서 삼마지를 얻어 분심을 깨치고, 육바라밀을 성취한다는 것은 그대로 깨달음을 얻어 불신을 체득하는 것이 된다.



법상정사

연명으로 14

웰에이징(Wellaging)

어느 시인은 '가고 싶은 길도 있고 가기 싫은 길도 있지만, 가서는 안 되는 길도 있지만, 내 뜻대로 안되는 게 인생의 길인 것을 이 만큼 와서야 뼈저리게 느낀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사실 사람이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살고, 사람답게 죽는 것이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일도 아주 멋지게 해 나가는 사람들이 많다. 잘 준비하고 준비된 것에 최선을 다하여 열정을 쏟아 부었기 때문일 것이다. 과연 어떻게 살고 죽어야 할까?

간 자유다. 태어나서 처음 맞이하는 나만의 자발적 시간이다. 여유작작하고 여유 만만한 여생의 시작을 위해 광파르를 울려야 할 때다. 웰에이징(Wellaging)을 위해 노년 특유의 열정을 가져야 한다. 노년의 열정은 경륜과 품격이 따른다. 노련함과 달관이 살아 숨 쉬는 풍요한 열정이다. 나이 들어갈수록 이러한 열정을 잃

태가'과우스트'를 완성한 것은 80이 넘어 서었다. '다니엘 드포우'는 59세에 로빈슨 크루소'를 썼고, '칸트'는 57세에 '순수 이성 비판'을 발표하였으며, '미켈란젤로'는 로마의 성 베드로 대성전의 돔을 70세에 완성했다. 또 물질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 들수록 초라해 지고, 일 중심이나 '나' 중심의 인간관

행복하게 늙기 위해 노년의 품격 지녀야

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의 35%는 60-70대에 의하여, 23%는 70-80대 노인에 의하여, 그리고 6%는 80대에 의하여 성취되었다고 한다. 결국 역사적 업적의 64%가 60세 이상의 노인들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소포클레스가 '크로노스의 에디푸스'를 쓴 것은 80세 때였고, 괴

계를 갖는 사람도 역시 외로움에 휘말리게 된다. 그러나 타인중심의 인간관계를 갖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찾아오는 사람이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다. 가장 바람직한 것은 타인중심의 인간관계라 할 수 있고, 가장 풍요로운 인간관계를 갖는 것은 부처님의 진리와 함께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행복한 삶이다.



도현 정사 피그말리온 효과

‘칭찬’과 ‘기대’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다

석가모니 부처님의 제자 중 함께 수행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형 마하반트는 매우 영특하였으나 동생 주리반트는 너무나 어리석어 출가 이후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한 줄도 이해하거나 외우지 못했다. 주리반트는 기원정사 앞에서 주리고 앉아 이런 자신의 모습을 한탄하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본 부처님께서 주리반트에게 청소도구를 주면서 공부는 잠시 멈추고 당분간 사원 안팎과 도반들의 숙소를 깨끗이 청소를 하는 것이 어떠냐고 하셨다.

주리반트는 공부보다는 청소가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매일매일 열심히 청소했다. 그 결과 사원의 안팎은 깨끗해졌고 부처님과 도반들은 모두 주리반트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사원이 더욱 깨끗해질 것이며 이러한 깨끗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게 청소 해주는 그를 칭찬하였다. 평소 어리석고 우둔하여 주변으로부터 놀림만 받던 주리반트는 모두의 칭찬과 기대에 더욱더 열심히 청소를 하였다.

그렇게 열심히 사원 구석구석을 청소하던 어느 날 문득 주리반트는 '재와 흙과 먼지들은 청소를 하면 없어지는데 나의 어리석음과 우둔함은 어떻게 해야 없어질까' 하는 생각이 미쳤다. 그리고 '지혜로서 모든 번뇌를 청소하면 어리석음이 사라진다.'하시던 부처님의 가르침이 생각났다. 그러다 그는 그 의미까지 깨우쳤고 마침내 번뇌를 여의고 아라한이 되었다. (증일아함경 11권)

누군가의 칭찬과 기대는 그 칭찬과 기대를 받은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예를 우리는 방금경전에서 보았다. 누군가가 칭찬해주고 기대를 크게 가져주면 칭찬을 받은 이는 칭찬과 기대를 해준 그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게 되고 마침내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피그말리온 효과'라 한다.

피그말리온은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키프로스 섬의 국왕 이름에서 유래한다. 조각 솜씨가 뛰어났던 피그말리온 왕은 상아로 아름다운 여인을 조각하고 그녀에게 '칼레데이아' 라는 이름까지 붙여 준다. 그런데 조각이 얼마나 아름다웠던지 왕은 그만 자신이 만든 조각상을 사랑하게 되었다. 그 후부터 왕은 그 여인조각상이 살아 있는 것처럼 온갖 정성을 쏟으며 애지중지 하였다. 그러다 그는 신에게 이 조각상에게 사람처럼 생명을 불어 달라고 기도까지 하였다. 결국 왕의 정성과 기도에 감동한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는 조각상에 생명을 불어넣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고 피그말리온 왕은 사람이 된 칼레데이아와 결혼까지 하게 된다.

이 신화는 강한 염원과 기대가 실제적인 효과를 불러온 사례로 인용되면서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이름의 유래가 되었다.

피그말리온 효과는 교육심리학에서 거론되는 심리적

행동의 하나로 교사의 기대에 따라 학생이 성장이 하는 것. 즉 무언가에 대한 믿음, 기대, 예측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경향을 말하는 것이다.

폭력, 마약, 알코올 중독, 밀입국자, 총기 등이 관치는 뉴욕의 흑인 빈민가 무법지대 한가운데 위치한 노비타 초등학교에 다니는 로저 톨스는 무단결석과 폭력을 일삼는 소문난 문제아였다. 그러던 어느 날 노비타 초등학교에 피어 풀이라는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다. 하루는 교장선생님이 로저 톨스의 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다.

“가늘고 긴 손가락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뉴욕의 주지사 사가 되겠구나.”

이 말을 들은 로저 톨스는 벼락을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이후 로저 톨스는 오직 주지사가 되겠다는 생각으로 공부에 전념했다.

다시는 누군가와 싸우지도 않았으며 비속어나 욕을 입에 담는 일도 없었다. 그리고 남을 도우는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동안 로저 톨스는 단 하루도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위해 노력했다 그리고 55세가 되던 해 테디어 뉴욕의 최초 흑인 주지사가 되는 영광을 차지했다.

이 이야기는 교사의 칭찬과 기대가 학생의 학습과 나아가 성장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피그말리온 효과의 대표적 예이다.

미국의 철학자이며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는 ‘인간이 가장 갈망하는 것은 칭찬’이라 했다. 이 세상에 칭찬과 기대를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없다. 모두들 더욱더 큰 칭찬과 기대를 받기 원한다. 따라서 누군가 더 크게 발전하기를 원한다면 그에게 칭찬과 긍정적인 기대를 가져야 한다. 긍정적인 기대는 상대를 나쁜 방향으로 몰고 갈수도 있다. 기대는 설정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다고 해도 눈빛이나 말투 등을 통해서 상대방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만약 내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두 잘되기를 바란다면 그들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자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한다.



그때 그 시절

학생회 지도교사 발령

총기 23년(1994) 4월 1일

성화사 학생회 지도교사 촉탁 임명

총지 교양대학교 개설

총기 25년(1996) 4월 23일

불교총지총 총지 교양대학교 개설

사원명 : 밀행사(密行寺)

- 예전사원명 : 밀양선교부
· 개설일자 : 총기2년(1973) 5월 16일
· 사원 개명일자 : 총기 4년(1975)년 10월 29일
· 사원 신축헌공불사 : 총기 12년(1983) 4월

7사단 점등 철탑 제작 설치

총기 27년(1998) 4월 2일

- 설치 장소 : 7사단 전방 G.O.P (철책선 부근 지형조건이 좋은 곳)
· 철탑 규격 : 바닥 넓이 - 가로 세로 각각 3m
철탑 높이 - 지상 13m
철탑 재료 - 철재 (아연 도금)

여의도 봉축법회 및 제등행렬

총기 24년(1995) 4월 29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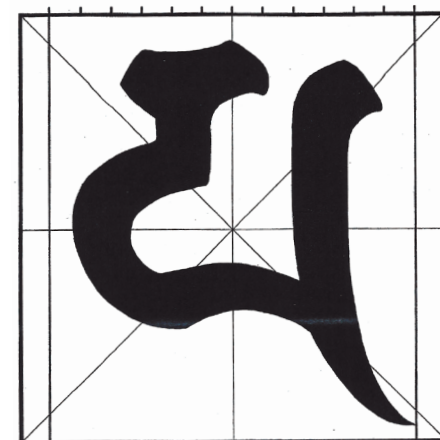
- 참여인원 : 총 525명 (동해중 50명 포함)
· 제등행렬 : 여의도 광장출발-공덕R. - 아현R. -서대문R. -광화문-중로1가- 조계사 도착 (4시간 30분 정도 소요)



범자진언

< Ya字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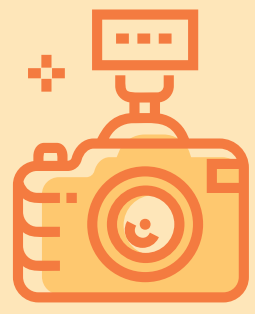
< 범자 쓰는 순서 >



subham ajeyam (발음 표기)
슈브함 아예엄 (범음)
수반 아예엄 (한자음)

★ 뜻 : 복을 받게 하며, 무적의 것

· 수반 - 행복, 복, 행운, 풍요 · 아예엄 - 무적의



사/원/탐/방

무학산정기 속에 피어나는 불심의 도량 **운천사**



한마음으로 참회와 성찰, 기본을 지키는 사람들

누구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신정회 회장인 이성미 보살은, 회장직을 맡은 지 5년이 지났다. 그에게는 특별한 입교 계기가 있다. 이유 없이 쓸쓸한 생일날 우연히 지나가다 사원에 들렀던 것이, 인연이 되어 현재까지 다니고 있다. 이성미 보살은 서원당에 들어서서 본존을 보는 순간 마음이 너무도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한다.

이성미 보살은 “운천사는 기본을 지키는 사원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규율에서 벗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선배 보살님들께서 틀을 잡아 절 내에서 쓸모 없는 소란이 없습니다. 모든 보살님들이 보고 배우이 올바르니, 누구 한 명 벗어나거나 못 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의 마음이 한 마음 한뜻으로 모여져 화합하는 사원입니다.”라며 사원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이어서 “월초기간이 끝나면 종종 단합대회도 갑니다. 그럴 때는 직접 음식을 합니다. 제가 회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있는 것도 참 부끄럽습니다. 많은 보살님 모두가 주인의식을 갖고 수행생활을 하는 덕에 수월하게 신정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스승님들에 대해 묻자 “전수님께서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기쁩니다. 저는 전수님의 손에서 염주가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역사나 기본에 충실하게, 불공을 성실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제가 더 부끄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듭니다. 정사님은,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는데, 인심 좋은 옆집 오빠 같은 느낌입니다. 정감 가는 인상에, 다정한 말투까지 전혀 불편할 수가 없는 분입니다. 두 분 모두에게 늘 감사한 마음뿐입니다.”라며 주교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었다.

운천사에서 일명 ‘배 선생님’으로 통하는 배도련 보살은 뛰어난 명필가이다. 어떤 행사든 글씨 쓸 일이 있으면 모두가 앞 다투어 배 선생님을 찾는다. 배도련 보살은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는 것 뿐”이라며 겸손한 태도를 보였다.

이어지는 인터뷰에 배도련 보살은 “제가 절에 오고 느낀 것이 참 많은데, 그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늦게 왔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운천사의 문을 두드린 것이 참으로 후회됩니다. 하지만 후회보다는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운천사에 들어와서 스승님들의 지도 아래 20년이 넘게 불공을 하다 보니, 내가 지은 업은

결국 내가 받는 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의 모든 업은 범문으로 나타나니 스스로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보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라며 마음을 열어 보였다.

운천사의 자부심 부림합창단

부림합창단의 어원은, ‘사바하부림’에서 유래되었다. 합창단의 이름을 모두가 고민하던 중 이정미보살의 기지로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한다. 현재도 매주 수요일마다 모여 합창연습을 하며 기초를 튼튼히 다지고 있다.

부림합창단의 단장인 조정에 보살은 “합창이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성부령 창단할 수도 없는 일이라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레 자인행 전수님이 계실 적에 테이프노래를 들으며 합창에 대한 흥미를 키웠고, 현재 정원심 전수님께서 합창단 창단 후, 체계화를 시켜주셨습니다.”라며 합창단의 시작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KBS홀에서 합창을 했던 순간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무대 위에 오르기 전 긴장이 무대에 오르는 순간 설렘으로 바뀌었던 그 순간을요. 아마 무대에 오른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이었으리라 짐작해 봅니다.”라며 무대에 오르는 순간을 회고했다.

마지막으로 “총지종의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다른 사원에 합창단이 있는 것이 참으로 부러웠는데, 이제는 부러움이 아닌 자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신규 단원이 더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림합창단이 운천사에 힘이 되길 바라고, 더 발전하길 늘 염원합니다.”

돕고 깨닫고, 반짝반짝 빛나는

정원심 전수는 “저는 고향이 마산입니다. 이곳으로 처음 왔을 때 낯설 보다 기쁨과 설렘이 먼저였습니다. 제가 처음 느낀 것은 체계가 참 잘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계시던 스승님들께서 고생하여 닦아둔 길을 제가 편하게 걷는다는 마음이 들 때면 너무도 감사하고, 저 역시 그 길을 깨끗하고 올바르게 닦아 제 뒤에 걸어들어올 사람을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라며 감사한 마음을 내비쳤다.

이어서 “무엇보다 보살님들께서 참 점잖습니다. 우리끼리는 양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누구 한명 잔소리 부리는 보살님이 안 계십니다. 공양처에서의 모습을 보면 모두가 숭선수범하기 바쁘니다. 누구 한 명 가만히 앉아계시는 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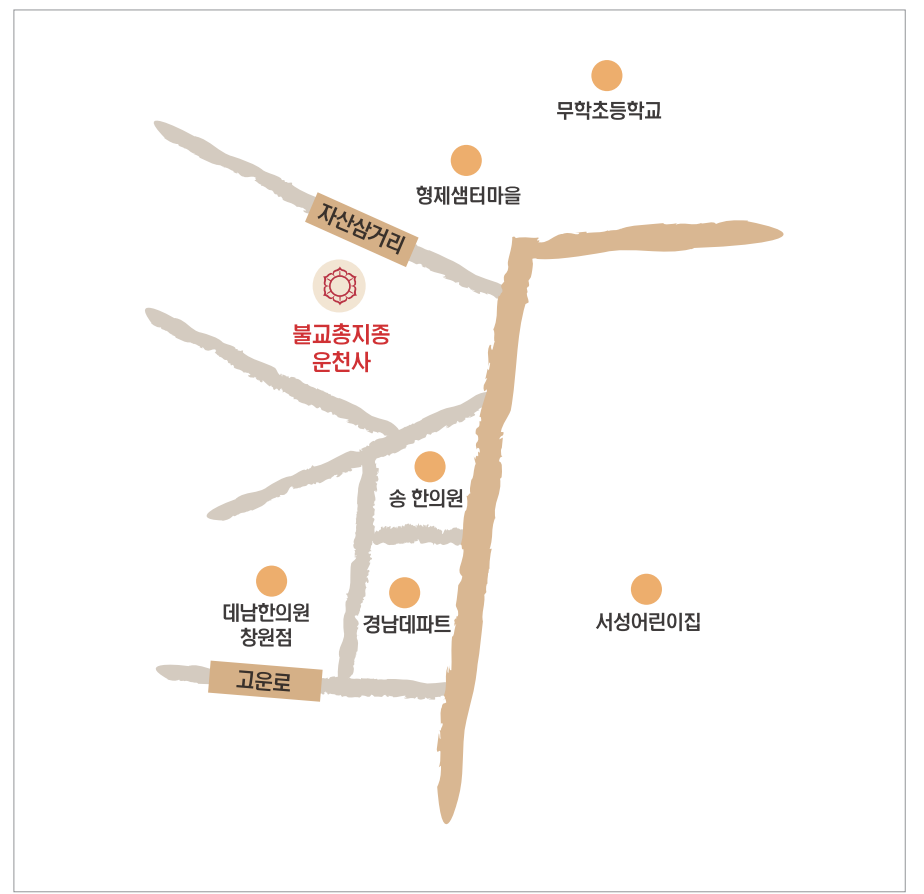
없고요. 무엇이라도 하나 돕기 위해 노력하십니다. 진실로 다 갖추어진 보살님들만 남아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체를 탈탈 털어내면 진짜배기 알맹이만 남는 것처럼 말입니다.”라며 보살님들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해봉 정사는 “본받을 것이 참 많습니다. 보살님들을 보면서 늘 배우고 깨닫습니다. 일체간이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다면, 운천사에 와서 우리 보살님들을 만나길 바랍니다. 모두 다 앞선 스승님들의 노고라고 생각합니다. 보살님들 얼굴에서 반짝반짝 빛이 나는 것을 보면, 다들 잘하시고 계시는구나, 하고 생각이 듭니다. 운천사의 합창단이 더 활성화 되길 바랍니다. 합창단에 더 많은 외부 사람들을 참여시켜 포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라며 금강합장을 했다.

웃고 기뻐하자, 부처님 오신날

생일은 잔치를 하는 날이다.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날이다. 부처님의 탄신을 축하하는 초파일이라고 해서 다들 잔치를 하지 않는다.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불공을 끝내고 나면 신나는 잔치 한마당이 열린다. 우연인지 많은 보살들이 잔치를 벌이기에 좋은 직업을 갖고 있다. 어떤 보살님의 각자님은 지방 가수이고, 또 어떤 각자님은 색소폰을 연주하신다. 떡집을 하는 보살님도 계시니 더할 나위 없이 잔치를 열기에 알맞다. 잔치 준비가 끝나면 모두가 모여서 노래자랑을 한다. 그렇게 다 같이 웃고 즐기며 부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한다.

<취재 박설라>



운천사 악도



주교: 정원심 전수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안월동17길 12(자산동)
전화: (055)223-2021

지상설법

깨끗한 공기 마시며 삽시다.



윤천사 정원심 전수

하루아침에 자고 나니 무학산이 사라졌습니다. 간혹 서원당에서 울리던 까마귀의 염송 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습니다. 까악, 까악, 옴마니반메흠, 하는 소리가 편이나 친근했는데 말입니다. 이 모든게 미세먼지 탓일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미세먼지 때문에 어디를 가나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닙니다. 그 모습을 보노라면 참으로 생지옥이 따로없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요즘 중국발 초미세먼지와 황사 문제로 한반도의 대기질오염이 심각합니다.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어 비와 바람만 믿고 있는 것이 현실의 안타까움입니다.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는 하루 이틀에 해결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냥 앉아서 중국이 해결해주길 기다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고통은 나의 것이니 함께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몽고와 북한의 경제발전에 따른 환경문제도 일어날 텐데 그것은 또 어찌할지 걱정이 앞섭니다. 진실로 마스크가 아닌 방독면이 필요한 시대가 곧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현재 세계에서 매년 7백만이 넘는 인구가 환경오염으로 피해를 입고 있으며, 바다에서는 산업쓰레기가 떠다니며 섬을 이루고 있고, 해양 동물들은 쓰레기를 먹고 죽어가는 등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해결하지도 못 했고, 앞으로도 해결하기 힘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자연훼손과 환경오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연을 잘 섬기고 환

경을 잘 떠받드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자 소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주자연을 아끼고 살리는 것이 불교의 자비정신입니다. 이것을 실천하여 성취할 때 우리 삶의 질이 한층 더 향상되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더러워지면 세상이 오염되고 썩지만 내 마음이 맑아지면 세상이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잘못된 것은 내 탓으로 돌리고 자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환경이 훼손되면 결국은 인간의 손해입니다. 현재의 내가 자연환경을 위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켜 보아야 합니다. 작고 사소한 것부터 점검하고 참회하고 실천하는 마음 가짐이 복을 짓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나는 혼자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이 우주 자연속에 있는 모든 것

들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나인 것입니다. 나와 우주자연의 관계는 불이(不二)입니다. 불이는 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우주자연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우주자연의 주인이 되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연속의 공기가 없으면 나는 한 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호흡을 통하여 우주자연의 에너지인 공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주자연속의 흙, 물, 불, 공기가 라는 네 가지 원소를 빌려 지금의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수화풍의 원소는 우리를 지탱시켜줄 뿐만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이며 우주자연은 무엇입니까? 이 우주자연은 큰 나이며, 나를 살게 하시는 법신입니다. 나는 대

우주자연의 주인이신 법신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볼 때 고마운 마음이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나를 위해서 맑은 공기를 만들어내고 있으니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주자연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아는 사람은 우주 어디를 가도 우주자연의 대도(大道) 속에 머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대도를 누릴 수 있게 되면 머무는 그 자리 자리마다가 법신의 국토이며, 극락세계가 아닌 곳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대한 불평불만이 내 속에 짙 차 있고, 너도나도 환경을 오염시킨다면 비록 극락에 있다 할지라도, 미세먼지가 가득한 극락이 어디 극락이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생지옥으로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진정 극락 같은 삶을 살고자 하다면 우주 자연과 하나가 되어서 하는 일마다 처처불공 사사불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나와 가족 그리고 이웃과 대중을 위해 불공하여 복과 덕을 쌓아 왔습니다. 이제는 대우주의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큰 서원을 세워 보살행을 하는 것이 바로 자리타요, 최상의 공덕과 복덕이라 생각합니다.

윤천사에서는 미세먼지가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질 그 날까지 기상청정사바하, 미세먼지소멸사바하를 서원하면서 우주법계의 청정법신부처님과 언제나 함께 할 것입니다. 성도합시다.



박금자 교도

신행담 1

마음 발에 '옴마니반메흠'을 심고 삽시다.

70년대 초, 절대 빈곤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굶주림에 힘들어하던 시절, 교직에 있던 남편을 따라 마산으로 왔습니다. 허름하게 철길을 베고 지은 집에서 셋방살이로 자리를 잡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시댁에서의 독립이라는 즐거움에 힘든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 남편에게 병마라는 커다란 고난이 눈앞에 닥쳐왔습니다. 당시의 형편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고통을 부모님이나 주위 사람들에게 티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경제활동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얇은 실력이나마 아이들을 가르치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동네의 초등학교를 상대로 과외수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을 집으로 불러 수업을 진행하였는데, 여전히 셋방살이하는 중이라, 주인집의 눈치가 보이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감사하게 아이들이 집을 드나들고 제가 수업을 하는 것을 양해해 주셨습니다. 저는 약소하게나마 저의 감사함을 표현하기 위해서 제가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일을 거들며 미안함을 들었습니다.

사정은 나아지진 했으나, 여전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생활비와 병원비를 좀 줄이려고 사과와 무를 사서 그곳에 부치러던 주사를 놓는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도 처음 남편에게 주사를 놓았던 순간이 기억납니다. 저는 긴장감으로 식은땀을 흘렸고 남편 역시 전문가가 아닌 저의 손길을 조금은 두려워했습니다.

처음에는 요령이 없어 주삿바늘이 휘어지는 고통을 참으며 남편은 주사를 맞아냈고 저 역시 그 고통을 고스란히 나누며 남편에게 주사를 놓았습니다. 주사 놓는 방법이 익숙해질 때쯤, 남편은 병마와의 긴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서투게 주사를 놓았던 그 흥이 남아있는데, 그 흔적을 보며 지난 날을 회상하기도 합니다. 이 긴 고통을 견딜 수 있게 해주신 부처님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천정 속모님께서 저를 데리고 절을 찾아갔는데, 불상은 보이지도 않고, 알 수 없는 글씨가 적힌 커다란 액자가 있었습니다. 의아함을 품고 밖에서 서성이니 파마머리를 한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들어오라고 손짓을 하시는 것을 보며 꿈에서 깰 것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저는 다음날 남편과 함께 저인의 집들이에 갔습니다. 어쩌나 그 집이 부럽던지요,

그때 저는 여전히 월세방에 살았기 때문입니다.

집들이에 갔던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에, 너무도 우연히 광혜서원당이라고 적힌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저는 서원당으로 들어갔더니, 제가 꿈에서 만난 파마머리의 아주머니가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불상이 아닌 본존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파마머리의 아주머니는 바로 청신화 스승님이셨습니다. 스승님께서는 저에게 총지종에 관한 간략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내일부터 당장 나오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제가 무엇을 믿고 그 자리에서 그런 확언을 하였을까요. 아마도 부처님의 자비가 저를 믿음과 확신의 길로 이끌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 남편은 제가 절에 나가는 것을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아이들을 데리고 꼬박꼬박 절에 나갔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염송을 잘하던지요. 4년을 남편의 반대를 무릅쓰고 절에 부치러다니며 신행 생활을 한 결과, 남편 역시 저의 신심을 믿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입교 후, 저는 늘 제 마음 발에 옴마니반메흠을 심은 채 살았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모범을 보이며 노력했고, 남편에게는 현명한 아내로 아이들에게 존경받는 어머니가 되기 위해서 늘 올곧은 마음과 몸을 준비했습니다. 부모님과 일가친척에게는 지성으로 위하며 섬김을 행하고 이웃과 지인들에게는 불자로의 모범을 보이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현재는 시부모님 친정 부모님 모든 자매가 총지종에 제도 되어 있습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총지종 발전에 보탬이 되고 정진하여, 온 가족이 부처님의 자비 안에서 늘 평온하길 원합니다.

저는 자랑할 것도 내세울 것도 없지만, 몇 십 년을 총지종의 교훈에 따라 살았노라고 자부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에게 부처님은 자부심을 느끼게 해주십니다. 열심히 정진하고 하심하며 실천하니, 스스로의 운명이 바뀌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모든 분도 부처님의 자비 광명이 함께 하시고 원하는 서원들을 날날이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밖의 쾌락은 즐거움은 줄 수 있어도 행복은 줄 수 없습니다. 많은 분이 열심히 옴마니반메흠 노래를 부르시길 바랍니다.



박보경 교도

신행담 2

사십구일 불공 끝에 기적처럼 온 아이

26년 동안 총지생활을 하고 있는 박보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원체 몸이 좋지 않았고, 온 몸에 종기 종류도 많이 있었습니다. 몸에 있는 종기들을 보고 있으면 불쌍사 나온 나의 허물처럼 느껴져서 기분도 안 좋아했습니다. 쾌차를 위해 약도 정말 여러 종류를 지어다가 다량으로 먹어왔습니다. 그저 나의 몸이 좋지 않은 것은 영양이 부실하고, 체질이 좋지 않아서 라고만 생각하면서 지냈습니다. 결혼을 하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는데 정기 검진을 하던 어느 날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산모를 위해 아이를 포기해야겠어요.”

마른하늘에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그동안 무분별하게 먹어온 약들이 문제라고 했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였고, 주변 사람들이 일단은 나부터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하였기에 의사의 조언대로 하였습니다. 아이를 지우고 나니 세상을 보는 마음이 백팔십도 변하였습니다. 공허해진 뱃속만큼이나 머리도 허전하고 마음도 쓸쓸했습니다. 몸은 몸대로 계속 좋지 않았기에 매사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며 우울 속에 살았습니다. 매일 매일이 지옥처럼만 생각되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이웃의 할머니 한 분이 총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절에 한 번만 가보자.”
“절이요?”

처음 간 윤천사는 보통의 절처럼 불상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 보살님들이 절을 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없었기에 생각하고 많이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고행에 간 것처럼 포근하고 아늑하였습니다. 전수님과 다른 보살님들이 알려주는 대로 염주를 돌리고, 합장을 하다가 설법을 들었습니다.

처음 아이를 그렇게 보낸 후 다시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겨우 몸 안에 들어서도 곧잘 유산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 차례 내 안에서 숨이 끊긴 아이를 보내는 일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였습니다. 그렇게 오년이란 세월을 아픔과 괴로움 안에서 지냈습니다. 힘들 속에서도 아이는 꼭 가지고 싶었기에 아이를 자꾸만 보내게 되는 상황의 상처가 깊고 컸습니다. 어느 날 정사님이 설법 도중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간절히 원하면 안 이루어질 게 없습니다.”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간절하고도 열심히 불공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에 원인이 있다는 것을 총지종을 만나고서야 깨달았습니다. 이전에는 조금만 좋지 않은 일,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도 남의

탓으로 참 많이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이렇게 나의 몸에 종기가 많이 나고 또 체력도 약해지고 아이도 자꾸만 떠나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보냈던 일들이 다 나의 탓이라고 생각하니 끔찍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죄책감으로 까만 밤을 하얗게 새우던 때도 많았습니다. 지난날의 마음으로 쌓아온 원망과 불평과 미움을 소멸시킬 수 있을지 앞이 캄캄하였습니다. 그때로 돌아가서 없었던 일로 만들 수는 없었지만 참회를 거듭하며 나의 죄를 뒤는 데 열과 성을 다하였습니다.

사십구일 불공을 끝내던 날 기적처럼 아이가 찾아왔음을 알게 되었고 아이를 지키기 위해 불공에 매진하였습니다. 마음을 졸이던 시간을 보내고 마침내 무사하게 낳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는 건강히 무럭무럭 자라났지만 저의 몸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불공을 하였음에도 내 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답답하고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한 노보살님이 저와 아이를 보여 말했습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이에게 갔으면 어땠겠습니까?”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업이자 나의 죄인 것인데 이것이 정말 아들에게로 갔다면, 제정신으로는 삶을 견디기 힘들 만큼 몹시 고통스러웠을 것 같았습니다. 그제야 모든 상황과악이 제대로 되면서 부처님께 그렇게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진의 위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지금처럼 부단하게 정진에 힘을 쓰면 나아질 거란 믿음으로 부처님에게 의지를 하였고 정말 시간이 지날수록 쾌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날 마음속으로 다른 사람을 원망하였던 죄가 컸던 저는 속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 속제도 풀어야 했고, 또 살면서 생기는 고비 고비도 있었기에 저에게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인 셈이었습니다. 그러나 총지종 안에 있었던 까닭에,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IMF의 위기에도, 태풍 매미로 인해 각자님의 사업이 다 날아갔을 때에도, 극적으로 극복이 가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불공을 하면서 귀하게 얻은 자식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나의 죄를 뒤으면서 또 복을 짓는 일도 차근차근 하다 보니 어느 샌가 나의 병도 완치가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미 지은 죄의 무게로 인해 휘청거리게 될 때가 많으시다면 총지종의 가르침, 업을 다루는 지혜를 통해 생활의 중심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밀교연재

밀교문화와 생활 (27)

중생의 마음과 밀교수행 ①



법경 정사 (밀교연구소장/ 법천사 주교/ 철학박사)

60가지의 선심(善心)과 악심(惡心)
부처님께서 아시는 것은 지(智)이고, 중생이 아는 것은 그저 식(識)일 뿐이다. 그래서 중생의 식(識)을 망식(妄識)이라 부른다. 망령되고 그릇된 생각, 마음이다. 중생의 생각과 마음을 망념(妄念), 망심(妄心)이라고 말한다. 불교는 이러한 망식을 여의어 부처 될 것을 가르치고 있다. 부처가 된다는 것은 지혜의 증득을 가리킨다. 그래서 불교의 유식학에서는 중생이 부처 되는 과정을 전식득지(轉識得智)라고 표현한다. 중생의 식(識)을 굴러서[轉] 부처님의 지(智)를 얻게 한다[得]는 뜻이다.

이를 밀교의 대표적인 경전인『대일경』에서는 160가지의 마음으로 설하고 있다. 중생의 마음(妄心)을 설하면서 동시에 지심(智心)을 함께 설하고 있다. 그 마음을 경전에서는 60가지로 설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경전에서는 59가지를 설하고 있다. 1가지는 번역과정의 오류로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대일경』『입진언문주심품』에서 중생의 60가지 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금강수보살이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하였다. “세존이시여, 마음에 대하여 설해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금강수의 간청에 부처님은 다음과 같이 마음을 60가지로 말씀하셨다.

탐심(貪心)과 무탐심(無貪心)

그 첫 번째 마음이 탐심(貪心)이다. 탐심은 어떤 대상에 몰들어 집착하는 것이라고 한다. 집착은 청정한 마음을 더럽히는 것이며, 집착에 끄달리는 것이 곧 탐심이다. 이것이 치성하면 악업을 짓게 된다. 선무의 삼장은 중생의 탐심을 잡초에 비유하였다. ‘만약 수행자가 마치 농부가 일하면서 잡초를 뽑아내고 좋은 모를 돌보는 것과 같이 한다면, 곧 깨끗한 마음의 세력은 점점 자라날 것이다.’라고 하였다. 탐심을 없애는 것은 수행이나 생활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다. 그러므로 불공하고 기도하는 진언행자는 더더욱 탐하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탐심이 진심(瞋心)과 원망심(怨望心)을 일으키고 대립과 갈등을 야기한다.

두 번째가 이와 반대되는 마음으로서 무탐심(無貪心)이다. 탐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다. 즉 탐심이 없는 마음이 다. 선무의는 이 마음을 일러서 선(善)

이나 공덕(功德)마저도 바라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였다. 무탐심은 공심(空心)이자 참다운 마음(眞心)으로 비유된다. 집착과 애착의 결집이 없는 마음이기 때문이다. ‘이런 까닭에 선법(善法)에 몰들지 않고 더불어 선(善)의 싹을 장애하지도 않는다.’고 하였다. 어느 것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뜻이다.『금강경』의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을 말한다.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는 것이 곧 무탐심이다. 무릇 무탐심이 수행자의 마음이라고 한다. 그래서 수행자는 탐내는 마음의 실상을 잘 관찰하여 집착에 몰들지 않는 마음을 찾아내야 한다고 말한다.

진심(瞋心)과 자심(慈心)

세 번째는 성내는 마음, 진심(瞋心)이다. 무엇을 성내는 마음인가 하면, 분노가 표출되는 것을 말한다. 선무의 삼장은 분노란 성내는 마음이 발동하여 현상이 바깥에 드러난 것이라고 하였다. 마음의 실상을 알기 어려우므로 분노의 법에 따라 일어나는 마음을 성냄이라 해석한다고 하였다. 우리가 생활 가운데 고요하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면 이것이 성내는 마음의 실상임을 알

라고 하였다. 온갖 인연 가운데 오직 성내는 마음을 제대로 관찰하여 스스로 머무는 바 없이 머무르면 곧 성냄의 장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탐하고 성내는 마음은 머무는 바 없는 가운데서 사라지게 됨을 알아야 한다.

네 번째가 자심(慈心)이다. 자심은 자애로운 마음이다. 성냄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성내지 않는 마음이 곧 자심이며 이는 자비(慈悲)와 같은 말이다. 자애, 자비 속에서 분노는 일어날 수 없다. 성내거나 분노하는 마음에서 무자비가 증폭되는 법이다. 애착과 집착으로 인한 성냄과 탐심은 자애가 아니며 선한 중자가 아니다. 부처님께서 자애는 자무량심(慈無量心)을 닦는 데서 길러진다고 하셨다. 스스로 즐거운 마음을 내어서 남까지 즐겁게 해주려는 마음이다. 성내지 않고 즐거운 마음을 내는 것이 자무량심이다.

치심(癡心)과 지심(智心)

다섯 번째는 치심(癡心)이다. 어리석은 마음이다. 법을 관찰하지 않고, 뒤지 않는 마음이다. 제법실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다. 연기의 진리를 알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지혜가 없음을 의미한다. 무명(無明)을 말하는 것이다. 선무의 삼장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보지 않고 지혜로써 판단하지 않으니, 이로 말미암아 온갖 잘못을 저지른다’고 하였다. 모두가 어리석은 탓이다. 이것이 중생의 마음이다. 위의 탐·진·치는 삼독심(三毒心)으로서 삼악업(十惡業) 가운데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 악업이다. 삼업 가운데 의업(意業)에 해당한다. 이 치심은 수행과 공덕에 장애를 일으키는 번뇌 덩어리이다.

여섯 번째는 지심(智心)이다. 앞의 치심과 반대되는 마음이다. 지심은 지혜의 마음이다. 지혜는 제법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일체 존재를 있는 그대로 파악하고 깨닫는 것이다. 즉 일체를 분별지(分別智)로써 간택(簡擇)하여 승한 법을 취하고 법대로 행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어리석지 않은 마음의 참 모습이다. 우리 총지종의 심선회향(十善回向)에 ‘치심중죄 지심참회(癡心重罪 智心懺悔) 지혜공덕 금일성취(智慧功德 今日成就)’라는 게송이 있다. 어리석은 중생의 마음을 지혜의 마음으로 바꾸어 그 공덕을 성취해야 할

것이다. 오직 부처님 법을 믿고 행하여 실천하는 가운데 지혜가 증장된다.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이다.

흔들림 없는 금강심(金剛心)

일곱 번째는 결정심(決定心)이다. 굳게 안주하여 흔들림이 없는 마음이다. 밀교에서는 이를 금강심(金剛心)이라고도 한다. 어디에 안주하고 무엇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인가.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말씀에 안주한다는 것이며, 그 믿는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수행에 퇴전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구체적으로 결정심과 금강심은 바로 밀교의 삼밀수행을 말한다. 이를 삼금강(三金剛)이라 한다. 신구의(身口意)의 삼밀이 금강같이 굳세어서 부서지지 않고 깨트려짐이 없는 것이다. 신심과 수행이 퇴전하지 않는 것이다. 결정심을 버리지 않아야 옹행정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듯 마음은 부처이면서 동시에 중생이다. 마음은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와 같다. 잘 쓰고 잘 그리면 부처가 되는 것이요 못 쓰고 잘못 그리면 중생이 되는 것이다. 하루 가운데 입과 몸과 마음에 부처도 있고 중생도 있다.

정성준 교수의 후기밀교

구경차제 중 심청정차제(2)



정성준 교수 동국대학교 불교학술원

심청정차제는 인간의 마음이 가진 변계소집성, 의타기성, 원성실성의 공성을 자각하여 법신의 본성에 계합하는 것이다. 대승불교의 지관(止觀)과 다른 점은 호흡과 의식의 제어를 통해 육신의 생명력을 직시하는 어려운 과정이 동반되는 점이다. 밀교의 수행이 지닌 분석적 기법은 석존시대 수식관이나 사념처관 이후 인도불교의 전통에서 불교수행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경험적 산물이

다. 심청정차제는 인간의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계기에 대해 외적 환경에서 기인한 연기적 산물과 자아의 소모와 파괴 과정을 구분한다. 집안에 도둑이 들어올 때 도둑이 담 너머에 있는지, 이미 방안에 들어왔는지 모르고 무조건 앉아서 울을 쓰면 도둑을 잡지 못하고, 누구에게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심청정차제에서 인간의식의 의타기성과 변계소집성, 원성실성은 심청정차제

의 수행에서 순서적으로 현명(顯明)과 현명중취, 현명근득이라는 의식적 경험을 동반하게 된다. 그것은 마음의 소극성과 의식적 적극성, 의식의 중간성을 경험하는 것인데 『사자의 서』에는 죽음의 과정에서 세 가지 의식이 분해될 때 눈앞에 나타나는 특별한 빛을 경험한다고 설하고 있다. 『오차제』에서는 육신의 모든 생명력이 미세한 형태로 의식과 결합하고, 이것이 5근과 결합하여 인간이

외경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한다. 심청정차제에서 3단계의 의식은 공·극공·대공이라는 공성의 체득으로 이어진다. 현명근득은 광명과 어두움의 중간으로 석가모니부처의 성도가 새벽에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인간이 지닌 분별심이나 차별심은 빛과 어두움의 명암으로 존재하는데, 그 중간지대인 여명(黎明)의 단계에서 분별의 차별을 깨닫고 일체공의 무분별심에 계합하여 경각에 이르는 것이다.

심청정차제는 인간의식의 현상적 부분을 다루는 것으로 신어심, 즉 인간의 육신과 언어, 의식의 작용을 다루는 것이다. 불신(佛身)의 범주에서는 화신(化身)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다. 심청정차제 다음은 보신(報身), 또는 수용신(受用身)의 영역에 해당하는 자가지차제(自加持次第, svādhihāna-krama), 다른 이름으로 환신차제(幻身次第)의 수

행이 이어진다. 환신차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법화경』의 「수기품」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초기불교에서는 성문과 연가의 수행을 통해 아라한과를 성취한다고 하였다. 대승불교시대에는 정토사상이 등장하여 정토계 경전에는 아미타불의 전신인 법장보살(法藏菩薩)의 48대 원에서 볼 수 있듯이 성불한 이후 국토를 건립하여 많은 중음의 중생들이 안락한 국토에 태어나 계속 수행하여 성불에 이르도록 발원한다. 『법화경』에서 성문의 제자들도 성불하여 국토를 건립하고 불호를 받는다.

대승불교에서 정토불은 보신불(報身佛)의 범주에서 그 모습을 드러낸다. 이것은 중음의 윤회와 교유하게 되는데 그 불신을 타수용신(他受用身)이라 말한다. 대승경전에서 일체종지(一切種智)는 붓다가 국토를 건립하고 수용신을 성

취하고 중생을 구할 수 있는 온전한 지혜를 가리킨다. 후기밀교시대에는 일체종지에 대해 붓다에 대한 관념적 이상에 그치지 않고 실제적 수행체계로 건립하였는데 그 경설의 토대는 『대일경』의 일체지(一切智)와 신변(神變) 아니던가? 지난 2월 모 학회의 회의를 마치고 저녁 식사자리에서 화엄을 전공한 교수에게 일체지지와 신변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었다. 『화엄경』에는 일체지지와 신변이 나오며, 신라시대 불가사의를 비롯한 화엄계 승려들이 중국에 유학해 밀교를 수학한 이유도 여기에 담겨있다. 일체지지와 신변, 다라니는 『화엄경』과 『대일경』출현의 역사적 교량이다. 정토·화엄·법화를 잇는 경전의 고리가 『대일경』의 탄생으로 이어져 훗날 후기밀교시대 수행체계로 현실화되는 역사적 명장면이 인도불교에서 연출되고 있는 것이다.

벽룡사 교도

노루페인트 대리점 삼화페인트 전문취급

대신상사 (도장공사 단종면허 업체)

- | | | |
|-------|-----------|-------------|
| 취급 품목 | ▶방수공사전문업체 | ▶각종페인트 도·소매 |
| | ▶인테리어 집칠 | ▶기와칠 벽돌방수 |
| | ▶공사청부 | |



SAMHWA 삼화페인트 NOROO

종합 동해중 소식

종합 동해중학교 2019년 새내기 146명 맞이
전교생 50% 장학생 만들기, 어머니 독서회 총회도 열려



동해중학교(학교장 탁상달)가 2019년 3월 4일 146명의 새로운 식구를 맞이하였다. 이날 입학식에서 학교장은 인사말에서 “학생들이 책을 많이 읽고, 자기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키우겠다.”며 실천중심의 인성교육 강화와 다양한 동아리 활동으로 학생들의 특기와 적성을 개발할 수 있는 학생 지도 방법에 대해 안내했다. 또 “개개인의 맞춤형 진로 지도로 본인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지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밝혔다. 특히 학교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는 전교생 50% 장학금을 받는 학교 만들기에 많은 관심

이 쏠리는 가운데, 학부모들에게는 “자랑스럽게 자녀를 보낼 수 있는 학교 문화를 만들겠다.”며, 선생님들의 교육열 정도도 성원을 보내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과 함께 동해중학교 어머니 독서회 2019년도 정기총회가 3월 14일 열렸다. 입학 한 1학년 학생의 학부모 38명이 새롭게 참여하였으며, 임원단 선출 및 연간 행사계획을 협의하였다. 새 지도교사는 국어과 조희선 선생이 맡았으며, 이날 ‘독서 지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특강을 한 학교장이 자문위원으로 연임되었다.

손안에 보이는 세상



주민등록등초본, 연말부터 전자증명서로 발급
“5천억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

그간 종이 문서로만 발급 가능했던 주민등록 등·초본을 이르면 연말부터 전자증명서 형태로 내려 받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생태계 구축을 위한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사업은 주민등록 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전자적 형태로 내려받고 제출도 온라인 회의에는 카카오페이, 농협은행, 교보생명, 신한은행, 대법원, 국세청,

금융결제원, 국민연금공단, 주택금융공사, 토지주택공사, 전자문서산업협회 등이 참석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모든 공공기관이 사용할 수 있는 발급·유통시스템의 기반을 구축해 연말 주민등록 등·초본 시범 유통을 시작할 계획이다. 정부가 발급하는 각종 증명·확인서 등을 매년 추가로 유통해 나갈 방침이다. 행안부는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으로 연간 5천억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했다. 소지형 기자



새봄, 우리 자신의 행복 근육을 키우자

현 난제는 어떤 원인서 비롯됐나, 개인 행복 트실해야 사회도 행복
몸 건강하기 위해 근육을 키우듯 ‘행복 근육’ 길러 스스로 행복하길

우리는 지금 봄으로 가는 길목에 서 있다. 이미 남쪽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며, 꽃 소식을 알린다. 봄의 전령사는 역시 뒤뒤하니 해도 꽃이다. 어느 시인의 시처럼 봄은 봄이라고 발음하는 나지 막한 음성으로부터 우리 곁에 오는 것 같다. 물론 전국적으로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가 쉽사리 봄을 내어주진 않지만 말이다. 그래도 만물이 소생하는 봄은 우리에게 큰 생동감을 안겨준다. 대자연과 함께 겨우내 꽁꽁 얼었던 우리의 마음도 사르르 봄기운에 녹아 내렸으면 한다. 과거의 부정적인 마음의 얼음을 녹이려면 우리도 행복의 근육을 키워야 한다. 그러려면 평소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매일 우리 사회의 각종 문제들과 분투하는 사이, 우리는 감사할 일들을 너무 많이 놓치고 살아간다. 우선 절에 가서 불교의 정법을 만난 인연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종종 잊고 산다. 탐진치에 중독된 사람들에게는 오늘 하루 건강하게 불교의 가르침을 수지 독송하고 정진할 수 있는 은혜 또

한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도 흘러보낸다. 공기 속 미세 먼지만큼이나 여러 가지 삶의 먼지들이 뿌연게 끼어서 우리내 마음을 더욱 힘들게 한다. 최저임금제도와 소득주도 성장, 가계대출의 적정성, 유명 연예인들의 일탈, 보수와 진보의 대립 등 요즘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면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흐리게 하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우리는 이러한 부정적 뉴스들을 접하면서 괴로움의 내용과 원인을 분석해 알아야 한다. 괴로움을 떨쳐버린 상태 즉 최고의 행복, 지속 가능한 행복이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 길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불교의 최고 가르침인 사성제를 되뇌어 볼 필요가 있다. 현실 생활에 적용도 해보자. 지금의 난제에는 어떤 원인이 작용되고 있을까? 또한 이를 해결하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산업 혁명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룬 지구촌의 드문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낮은 행복감을 극복하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절차의 정의 즉 윤리를 코스마다, 레벨마다 적용해 보자. 우리는 정작 중요한 윤리를 배제하고 지나온 과보를 엄청나게 받게 받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라 생각하겠지만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은 업보의 결과이다. 전문가들의 눈과 귀를 통해 시행해온 나라의 시스템을 바꿀어야 한다.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해서 활용하는 것은 보통 사람, 즉 시민이어야 한다. 시스템도 하나하나의 사람이 결정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사람의 심장을 통해 혈액 곳곳으로 흐르는 뜨거운 피가 가장 소중하게 효율적으로 사회의 체온을 높이는 수단이고, 목적이다. 가장 작은 단위로 한 사람의 행복이 트실해야 사회의 행복지수도 높아져 사회 전체가 행복한 미소를 띠게 될 것이다. 면역력이 약해져 조금만 상한 것 같아도 탈이 나고, 아주 조금만 무리를 해도 감기몸살에 시달리는 몸의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맛있게 먹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더 나아가 때때로 알맞은 운동을 해서 근육량

을 키우면 조금 체중이 많이 나가도, 조금 털 나가도 관계없이 건강하고 튼튼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행복도 근육을 키우게 되면 우리 사회의 행복 지수도 높아질 것이다. 이제 새봄부터라도 복 근육을 기르도록 하자. 취미생활과 공부 및 일을 통해서 행복을 추구하며 나와 가족의 행복, 이웃과 사회의 행복이 지속되도록 살펴보자. 나와 우리를 왕성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괴로움(五盛陰苦)이라고 한 말씀도, 해체가 담이라고 한 말씀의 속뜻까지도 세심히 살피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다. 혼자서 외롭고 함께는 괴롭다고 하는 어떤 이의 공동체 삶도 새기면서 삶을 지탱하는 것이 튼튼한 행복 근육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제부터라도 신체적 다이어트만 생각해 육체의 근육만 키울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마음과 행복의 근육도 키워보자. 복근의 ‘트’자보다 더욱 값진 것은 바로 마음의 ‘트’자라는 것을 잊지 말자.

<김주일=현대불교신문 편집국장>

난임시술 건보 적용 후 7만6천명·73만건 혜택
총 진료비 2천224억원 중 1천557억원 건보 부담

난임 시술이 건강보험에 적용되면 서 약 7만6천명이 73만3천여건의 난임 시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추진 현황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난임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이후 2018년 12월 말까지 1년 3개월간 7만7천55명이 73만2천711건의 건보적용 난임 시술을 받았다. 난임 시술에 들어간 총진료비는 2천224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건강보험이 부담한 금액은 1천557억원, 본인부담금은 667억원이었다. 난임은 부부가 피임하지 않고 1년 이상 정상적 부부관계를 해도 임신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난임 지원 사업을 시작해왔다. 저출산 대책을 보완해 2016년 9월부터 난임 시술 지원 소득 기준을 전면 폐지하고 저소득층의 난임 시술 지원금과 지원회 수도 늘렸다. 이를 통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50%를 넘는 가구도 체외수정 시술 3회까지 1회당 100만원의 난임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정부는 2017년 10월부터는 난임 시

술비 지원방식이 아닌 난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난임 지원을 확대했다. 이전까지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체외수정은 1회 시술 때마다 300만~500만원을 전액 본인이 부담해 왔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난임 시술 지원대상을 기존중위 소득(국내 가구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의 월 소득이 512만원 이하면 올해부터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는 신선 배아 체외수정 4회, 동결 배아 체외수정 3회, 인공수정 3회 등 모두 10회 지원해주는 등 지원회 수도 늘렸다. 지원 항목 역시 착상 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 동결·보관비용 등으로 확대했다. 비급여뿐 아니라 일부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도 1회당 최대 50만원까지 보조한다. 나이가 올해 하반기부터 사실상 부부도 혼인신고를 한 법적 부부와 마찬가지로 난임 시술을 받을 때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박남오 기자

불교총지중사회복지재단
후원에 감사합니다

2월 21일 ~ 3월 20일까지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후원회는 부처님의 참사랑을 주위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정성은 재단복지사업에 소중한 쓰여집니다.

후원금 납부방법

- 1. 단체일 경우 회장님이나 담당자를 통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 2. 후원금 납부는 지로 또는 아래 금융기관에 자동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 3. 회원번호란에 소속사명을, 통신란에 주소를 기재해 주시면 지로용지는 후원자님 앞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 지로번호 : 7668610
- 우리은행 : 122-177171-13-104
- 예금주 :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불교총지중 사회복지재단
전화 02)552-1083, 02)3452-7485

개천사	전세형	3/5	30,000
관성사	인선	2/25	20,000
	황성녀	2/27	10,000
기로스승	상지화	2/25	10,000
	수증원	2/25	10,000
	밀공정	2/25	10,000
	총지화	2/25	10,000
	법수원	2/25	10,000
	선도원	2/25	10,000
	법지원	2/25	10,000
	일성혜	2/25	10,000
	불멸심	2/25	10,000
	사홍화	2/25	10,000
동해사	안주화	2/25	10,000
	진일심	2/25	10,000
	해정	2/28	10,000
	해정	3/17	10,000
	법선	2/25	10,000
밀인사	탁상달	2/27	40,000
	정정희	3/5	5,000
법천사	반야심	2/28	10,000

법황사	유승태	3/11	10,000
	박미경	3/18	10,000
사원명 무기명	무명씨	2/22	7,000
	박필남	3/16	10,000
실보사	김갑선	3/19	10,000
	이순옥	2/21	10,000
실지사	유승우	2/27	10,000
	정경자	2/27	10,000
	조성우	3/5	10,000
	관득	3/19	10,000
운천사	무명씨	3/10	50,000
	하재희	2/25	50,000
일원어린이집	김지영	2/25	10,000
	구미자	2/28	10,000
정각사	안한수	3/5	10,000
	변순개	3/6	10,000
지인사	승효제	3/14	10,000
	황화성	2/26	50,000
초록어린이집	박정희	2/21	10,000
	이수경	2/21	10,000
총지사	신용도	2/21	10,000

총지사	김성민	3/11	50,000
	원당	3/11	10,000
	묘심해	3/11	10,000
	손경옥	3/15	10,000
	최영아	3/15	10,000
	박정희	3/17	10,000
	이수경	3/17	10,000
	신용도	3/17	10,000
	최유정	3/8	50,000
	강점이	3/4	10,000
함음사	무명씨	3/5	10,000
	강승훈	3/11	5,000
	강승민	3/11	5,000
	최영미	3/11	50,000
	우인	3/14	10,000
	보명심	3/14	10,000
홍국사	무명씨	3/19	10,000
	지정	3/14	20,000



절기이야기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청명'

정각사 남해 정사



때 농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목으로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식목일이 4월 5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더 유사한 기념일이 또 있다. 바로 한식이 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명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념일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손(악귀) 없는 날'로 여겨 성묘를 하고,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을 하기도 했다.

요즘은 미세먼지와 황사로 푸른 하늘을 보기가 힘들지만 4월 5일은 하늘이 차츰 맑아진다는 의미를 가진 '청명'이다. 음력 3월에 드는 24절기 중 다섯 번째 절기인 청명은 춘분과 곡우 사이에 들어있는 절기이다. 청명은 중국에도 똑같이 있는 절기인데, 중국에서는 청명 절기인 15일 동안 총 세 번 5일씩 나누어 초후에는 오동나무 꽃이 피기 시작하고, 중후에는 들쥐 대신에 종달새가 나타나며, 말후에는 무지개가 처음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청명은 말 그대로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을 뜻하며, 고기잡이나 농사일 등 생업을 잇는 활동을 하기에 좋은 절기이다. 농사력으로는 청명 무렵에 논밭의 흙을 고르는 가래질을 시작하는데, 이것은 특히 논농사의 준비 작업이 된다. 지역에 따라서는 특별히 다른 일을 하지 않고 묘 자리를 고쳐거나 집 수리, 산소 돌보기 등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추운 겨울 동안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기도 했다. 대부분의 농가는 청명을 기점으로 봄일을 시작했고, 청명을 '길일'로 여겨 이날의 날씨를 기준으로 한 해를 점치기도 했다. 오죽하면 '청명에는 부지깅이를 꽃아도 싹이 난다'는 속담이 있을 정도이다. 청명절이라 하여 보통 한식이나 청명에 날씨가 좋으면 그 해의 농사는 풍년이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점을 치기도 하였다. 한편 바닷가에 서는 청명과 한식에 날이 좋으면 어종이 늘고 어획량이 증가한다고 하여 날씨가 좋기를 기대했으며, 바람이 많이 불거나 날씨가 좋지 않으면 물고기가 많이 잡히지 않아 좋지 않다고 여기기도 했다.

청명에 나무를 심곤 했는데, 이때 나무는 '내 나무'라고 해서 아이들이 혼인할

때 농을 만들어주기 위한 재목으로 심었다고 한다. 그래서 식목일이 4월 5일로 정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 그런데 더 유사한 기념일이 또 있다. 바로 한식이 다. 한식은 동지 후 105일째 되는 날로, 일정한 기간 동안 불의 사용을 금하며, 찬 음식을 먹는 고대 중국의 풍습에서부터 비롯되었다.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청명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다소 낯설지 모르지만 예전에는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불릴 만큼 중요한 기념일이었다. 우리 조상들은 이날을 '손(악귀) 없는 날'로 여겨 성묘를 하고, 산소를 돌보거나 이장을 하기도 했다.

청명에 우리나라에서는 진달래 화전이나 쑥 버무리, 쑥 떡 등을 만들어서 먹었다. 또한 도미와 조기 등 흰 살 생선이 살이 오르는 제철이라 흰 살 생선을 밥상에 올려 먹거나 찹쌀로 빚어낸 청명주를 만들어 먹기도 했다. 특히, 쑥은 의사처럼 효능이 많다고 해서 의초라고도 불리며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싹을 틔운다. 향노화의 대표적 성분인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 면역력을 높여주고 베타카로틴이 일반 봄나물보다 많게는 10배까지 더 많이 함유되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준다. 쑥의 푸른 엽록소와 가지의 보라 영양소 안토시아닌이 함께 더해져서 나쁜 것들을 걸러내고 봄의 기운을 몸에 넣어준다.

링겔만 효과로 보는 협동의 중요성 “가족·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

동의대학교 신정택 교수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조별과제를 실시할 때 조별 학생의 수가 증가할수록 최선을 다하지 않는 무임승차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조별 성과도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

위의 현상을 가장 먼저 포착한 사람은 농업공학자 막스 링겔만이다. 링겔만 효과란, 집단으로 팀 작업을 할 때 일인당 과제 수행량이 인원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현상을 말한다. 즉, 사회적 태만이라고도 한다. 1913년 프랑스 국립 농업연구소 농업공학자 링겔만은 집단이 함께 하는 일에 참여하는 사람의 수가 증가할수록 1인당 기여도는 감소하는 현상을 발견했다.

이 실험은 개인의 공헌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까 나 하나 정도는 될 노력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제로 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 '책임감 분산효과' 등으로 부른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둘이 있으면 2분의 1,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감 분산으로 인한 동기의 손실과 더불어 협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개인 책임감 분산으로 인한 동기의 손실과 협동력의 감소가 링겔만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링겔만은 줄다리기를 실험을 통해서 이러한 현상을 발견하였다. 먼저 힘 측정 장치가 달린 줄을 설치한 뒤, 각 실험참가자들의 줄 당기는 힘을 측정했다. 그 다음에는 3명, 5명, 8명으로 집단 구성원 수를 점차 늘려가며 집단 전체의 줄 당기는 힘을 측정했다. 개인이 당길 수 있는 최대 힘 크기를 100%라고 가정했을 때, 집단 구성원 수가 2명, 3명, 8명으로 늘어나면 개인의 힘 크기는 93%, 85%, 49%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링겔만 효과로 불리는

이 실험은 개인의 공헌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일에 대한 책임감이 명확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이 하나까 나 하나 정도는 될 노력해도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심리학자들은 이를 '제로 비스 신드롬' '방관자 효과' '책임감 분산효과' 등으로 부른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모든 책임을 지지만 둘이 있으면 2분의 1, 10명이 있으면 10분의 1로 책임감이 분산된다는 것이다. 또한 책임감 분산으로 인한 동기의 손실과 더불어 협동력이 떨어지는 것도 개인 책임감 분산으로 인한 동기의 손실과 협동력의 감소가 링겔만 효과를 발생하게 한다.

상황에 내몰린 현대 사회인에게 협력보다는 경쟁에서의 승리가 더 중요하게 느껴지며, 내 일이 아니면 무관심하게 되는 책임감 분산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

하지만, '빨리 갈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갈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다. 협력과 상생의 기술은 사회생활을 하는 현대의 사람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심리기술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동과 상생의 기술을 학교와 사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설정하고 교육해야 한다.

혼자 달리기 할 때보다 함께 뛸 때 기력이 좋아진다.

경쟁 상황에서 협력할 때 개인 및 팀의 수행이 좋아지는 사회적 촉진도 발생한다. 대학교에서 조별 과제할 때 서로 협력하여 무임승차 문제없이 개인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자주 보고 싶으며, 이는 협력하는 사회생활의 문화로 연결될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라는 마음보다, 가족/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는 격언을 한 번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링겔만 효과 방지방법

- 1. 인센티브 시스템 활용하기**
개인의 기여도와 성과를 측정해 업무 수행성과가 좋은 사람에게 포상을 준다.
- 2. 책임 범위 명확히 하기**
개인의 기여도와 책임을 정확하게 설정해주고 평가한다.
- 3. 주인의식 심어주기**
구성원 스스로가 조직 내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나 가치를 발견해 주인의식을 갖도록 한다
- 4. 우수한 지도자**
구성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구성원 간의 협동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우수한 지도자를 둔다.



내 마음의 등불 1

어렵고 큰 착한 일을 하나 하는 그것 보다 일상생활 하기 쉬운 작은 착한 일이라도 많이 하여 습관이 되면, 크게 착한 것이 된다.
적소성대(積小成大)되는, 고로 그 복보(福報)도 무량하다.

-종조법설집(宗祖法說集) 선행(善行) 편-



종령 법공 대종사

티끌모아 태산(塵合泰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큰 것이 처음부터 큰 것이 아니라,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것이 된 것이요, 또한 작디작은 티끌도 많이 쌓이면, 태산 같이 큰 것이 된다는 이치는 만고불변의 법계원리인 것입니다. 중생들의 큰 허물(惡業) 또한 단번에

크게 짓기는 어려운 법. 평소에 작은 선행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꾸준히 지어 모아야 장차 큰 선(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나쁜 습관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버리기를 힘쓰고, 좋은 습관 하나씩 익혀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등불'은 스승님들이 평소 마음에 새기고 계신 지혜와 말씀을 릴레이 식으로 소개합니다. 종령 법공 대종사님께서 다음 필봉 주자로 통리원장 인선 정사님을 지목하셨습니다.



맛찬들 3.5 노원점 왕소금구이



예약전화 **02-938-7008**

위치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368-9

영업시간 11:00 - 01:00

신정회 People ①

“같이 걸어가면 미래가 생긴다.”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



“내 나이가 팔십이예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젊은 분들한테 자리를 내줘야 했는데, ‘나는 그저 남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다가 가른다.’는 생각을 말로 꺼내 놔더니, 여기저기서 나를 자꾸 부르네요.”

서울경인지회 김은숙 지회장은 몇 년째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지회장을 울해도 말으셨다. 오로지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미력이나마 돕고 싶다는 말씀이었다.

“같이 걸어가면서 미래가 생긴다고 생각해요. 요즘 같이 다름이 많은 시대는 참 안타까워요. 저는 승단과 교도, 또 젊은 교도와 나이 든 교도들 간에 많은 대화와 교류를 해야 우리 종단이라도 화합하는 곳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신정회도 이런 모습으로 발전해야 할 것 같아요.”

총지 교도로서 벌써 30년이 훌쩍 넘었다고 하시는 지회장은 오랜 세월 속에서 특별한 인연도 회고하셨다.

“동리원장 인선 정사님께서 승직에 오르신 때 첫 가사보시를 했어요.”

그 인연 때문에 아직도 지회장 소임을 맡게 되는 것 같으며 웃으셨다.

“총지사에는 처음에 아들 셋 서울대만 보내달라고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바로 들어 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지나고 보니, 부처님께서 원시안을 가지셔서 나에게 맞는 진정한 도움을 주시는구나 깨달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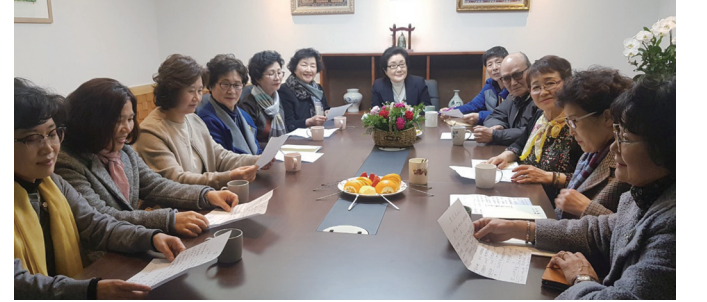
총지사에 대소사가 있을 때마다 꽃시장에 들러 꽃을 사고, 직접 꽃꽂이를 해

서 꽃 공양을 정성으로 올리셨다. 어느 날은 몸이 너무 힘들어서 어렵게 나왔다가, 꽃꽂이를 하면서 아픈 줄 모르고 더욱 정진하게 되었고,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 집안도 편하고 자식들도 잘 되고, 오늘 건강한 이 모습을 지니고 있지 않겠나 싶다 하신다.

그래서일까? 지회장님 얼굴은 목련꽃 같으시다. 어찌 나무위에 피는 연꽃이라 했을까. 목련은 봄이 되면 나뭇잎이 자라기도 전에 먼저 꽃을 피운다. 진흙탕에서 피어오르는 연꽃이나, 겨울을 견뎠다 마른 나무에서 꽃잎으로 싹을 틔워주는 목련은 만행화(萬行化)로 비견하기에 그 모습이 너무나 닮았다.

박재원 기자

소통하는 통신원,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통신원



관성사 김관태 교도 문인화 전시회

서울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열리는 목련화원전에 관성사 김관태 교도 작품이 출품 전시되었다. 목련화원전은 서예, 문인화를 함께 배우는 도반들이 개최한 전시회로, 김관태 교도는 <홍매>, <술> 2점을 출품했으며, 한국추사서예대전 특선, 대한민국의조대왕서화대전 입선 등 수상한 바 있다.



정각사 산악회, 이기대 공원 트레킹

정각사 산악회(회장: 안한수 각자)는 3월11일 이기대 도시자연공원과 UN평화공원을 돌아 보았다. 이기대 공원은 구름다리, 해안 산책로, 어울 마당, 솔밭 쉼터, 산책로, 약수터, 큰고개 쉼터, 장산봉, 오륙도 등으로 이루어진 약 2km에 달하는 해안 일대로 트레킹 코스로 유명하다. 산악회장 안한수 각자의 안내로 도현, 남해, 도신정사를 비롯 명진 전수, 교도 22명이 동참했다.

<통신원=한미옥>



어울림소식

정각사
이영조 교도 아들 구훈회군과 황말순 교도 딸 김현주양이 결혼합니다. 새출발을 축하드립니다.

2019년 3월 30일 12시 30분 / 아시아드시티웨딩홀 1층 R홀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새해 첫 모임

신정회 서울경인지회 첫모임이 3월 13일 지회사무실에서 열렸다. 이날 서울경인지회는 지회장으로 현 김은숙 지회장을 추대했다. 또 양재범 재무의 결산보고에 이어, 상반기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경인지회는 상반기 운영에 대한 목표를 지회의 화합과 종단 발전에 기여하는 점에 착안하여, 종단에서 운영하는 흥국사 요양원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기로 결의하였다.



수인사, 신정회 및 수인회 간부 위촉

수인사 신정회 간부 이취임식이 3월3일 자성일에 서원당에서 봉행되었다. 신정회 이남이 전회장의 퇴임사와 신임 이경화 신정회장의 인사말이 있었다.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교 법일 정사가 주재하고 매달 정기회의를 통해 수인사 교화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한편, 수인사(주교: 법일정사) 봉사단체 수인회 간부 위촉식도 3월24일 자비선 전 회장, 이경화 신정회장등 교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행되었다. 수인회 새 회장에는 황갑순 교도가 위촉되었으며, 이미향 부회장, 김에선 총무가 위촉장을 받았다. 임기는 3년이다.



벽룡사 산악회 연주대 올라 첫 참배

벽룡사 산악회(회장: 손강의)는 3월 17일, 금년 첫 산행으로 관악산 정상에 올라 연주대를 참배하였다. 교도 총 19명이 참여한 이번 산행은 자성일 불공을 끝내고 3시에 출발하여, 교도들의 격려와 단합속에 가족 같은 분위기로 진행되었다. 참여한 조귀자 교도는 “규모는 작지만 그 단단함은 다른 절의 추종을 불허합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통신원=양재범>

Q&A “적당하게 먹은 것을 방편으로 삼아야”

Q.불자가 고기를 먹으면 불살생계를 어기는 것이 되는데 불자가 고기를 먹어야 할 경우는 어떻게 하죠? 죄책감을 느끼며 살아야 하는가요.

A : 1에서 3번까지를 삼정육(三淨肉), 5번까지를 오정육(五淨肉), 9번까지를 구정육(九淨肉)이라 합니다.

1. 나를 위해 죽이는 현장을 목격하지 않은 고기
2. 나를 위하여 죽인 것이란 말을 듣지 않은 고기
3. 나를 위하여 죽인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되지 않는 고기
4. 수명이 다하여 죽은 까마귀
5. 맹수나 까마귀가 먹다 남긴 고기
6. 나를 위하여 죽이지 않은 고기
7. 자연사하여 죽은 지 여러 날이 지나 말라붙은 고기
8. 미리 약속함이 없이 우연히 먹게 된 고기
9. 당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고기

어느 날 수자타가 유마에게 삼정육에 관한 물음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유마 : 삼정육(三淨肉)이란 세 가지 깨끗한 고기라는 말이다.

수자타 : 그러면 그 세가지 깨끗한 고기는 누구나 취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유마 : 그렇다. 삼정육은 누구나 취해도 좋다. (중략)

초기불교에선 삼정육(三淨肉)과 오정육(五淨肉), 구정육(九淨肉)은 먹어도 좋다 했습니다. 이에 열반경에서 가섭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왜 이전에 부처님은 비구가 삼정육과 구정육을 먹도록 허락하셨습니까? 부처가 말하였다. 그건 상황에 따라서 필요했고, 사실상 육식에서 점차 벗어나도록 하기 위한 단계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마 : 부처님께서도 그리하셨습니까. 삼정육은 그들 아직 습기(習氣)에 찌든 제자들을 달래기 위하여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실 뜻으로 말씀하신 것이지 깨끗한 고기는 먹어도 좋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는 열고서 한쪽으로는 닫은 것이니, 가히 부처님의 방편이시니라. 다만 병든 수행자로서 꼭 고기를 약으로 써야 하는 이는 제외하나라. 이 경우에도 그 병든 수행자의 판단으로 할 것이요 남이 함부로 고기를 쓰지는 못한다고 하시며 병자를 위한 약으로 꼭 필요한 경우는 허락을 하고 계시기도 합니다.

티베트 불교도들의 경우는 고기를 먹어야 할 경우가 생기면 육식진언을 외우고 고기를 먹으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고기를 즐기며 살생의 불선업을 더 많이 짓는 행위를 줄여 나아가기 건강을 위해 적당하게 먹는 것을 방편으로 삼아 지혜롭게 신생활을 하는 현명한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법일 정사)

불교총지총 복지재단산하

힐스 어린이집

어린이가 행복한!

불교총지총사회복지재단

주소 서울시 강남구 자곡로3길 21 LHA5블럭 강남내힐스테이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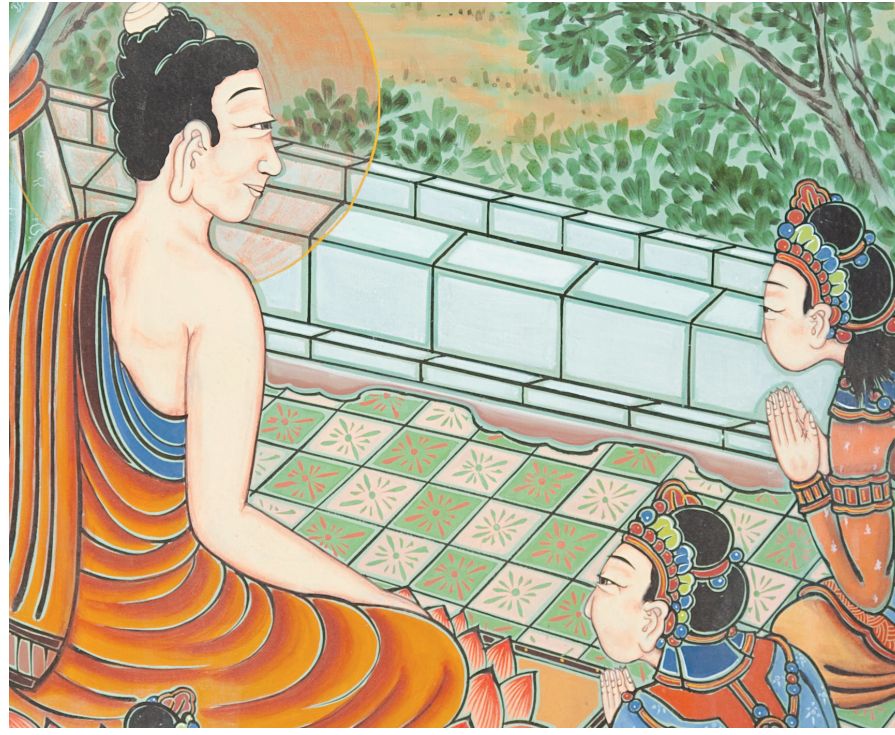
전화 02) 445 - 3218

원장 곽방은

부처님의 자식교육
밀행제일 라훌라(1)

엄하면서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애

화령 정사(불교총지중 중앙교육원장)



라훌라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사리불에게 라훌라의 머리를 깎아 출가를 시키라고 하시고는 라훌라를 잘 가르치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에게 진정으로 물려줄 만한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를 닦아 깨치는 정신적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지만 가장 어렵기는 아마 자식교육일 것이다. 다른 사람의 자식은 잘 가르쳐도 정작 자기 자식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자기 자식을 가르치려면 부모로서의 정이 앞서 객관적으로 아이의 상태를 잘못 보기 쉽다. 거기다가 자식에 대한 욕심이 생겨 가르치는 데에 조급함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버럭 소리도 지르고 화도 낸다. 자식은 부모의 그러한 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반항하거나 주눅이 들어 부모로부터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자식 가르치려다가 오히려 관계만 나빠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가 입시전문 교사이면서도 비싼 학원비 내면서 남의 손에 자식교육을 맡기는 것도 다 그런 이치이다. 자기 자식에게 자기가 가진 것을 오롯이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석가모니 부처님은 자식 교육을 어떻게 하셨을까? 여기에 그 일화가 있다.

부처님이 성도하시고 한참을 지나서 고향인 카필라바스투를 방문하셨다. 이때에 부처님의 아들인 라훌라(Rāhula)도 출가했다고 한다.

어느 날 라훌라가 부처님 계신 곳으로 와서 다짜고짜 “저에게 물려줄 재산을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이때 라훌라는 열두 살 정도 되었다고 하는데 어쩌면 어머니가 되는 아쇼다라가 가서 그렇게 말씀드리라고 시켰는지도 모른다.

아니면 세속적인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오랫동안 만나는 남편이 무엇인가 엄청난 선물을 줄 줄 알았는데 사문의 차림으로 범문만 하고 다니시니까 섭섭해서 라훌라에게 이렇게 놀라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라훌라의 말을 들으신 부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더니 사리불에게 라훌라의 머리를 깎아 출가를 시키라고 하시고 라훌라를 잘 가르치도록 하셨다.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에게 진정

으로 물려줄 만한 재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도를 닦아 깨치는 정신적인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셨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되는 정반왕은 손자 라훌라까지도 출가할 것을 알고는 무척 서운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정반왕은 나중에 어린 아이들이 출가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동의를 얻도록 하라고 부처님께 건의했고 부처님께서는 이를 받아들였다.

어린 라훌라는 억지로 사미가 되기는 했지만 아직 철이 없고 아버지가 부처님이며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앞세워 말씀을 꽤나 부렸던 모양이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를

“너도 이와 같이 비록 사문이 되었으나, 말이 성실하지 못하고 몹시 고집이 세어 정진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일찍부터 나쁜 이름을 얻었으니, 대야에 음식을 담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발가락으로 대야를 굴러 밀치시니 대야가 몇 바퀴 굴러 가다가 곧 멈추었다. 부처님이 라훌라에게 또 말씀하셨다.

“너는 대야가 부서질까 겁이 나느냐, 나지 않느냐?”

“발 씻는 그릇은 값이 싸고 천한 물건이라, 조금 아까우나 그다지 아깝지는 않습니다.”

“너도 이와 같이 사문이 되어서 몸과

워인 천 조각을 기워 입고는 얻어온 밥으로 생활해야 하며 한창 어리광을 부려야 할 나이에 마음껏 뛰어놀지도 못하면서 엄한 규율을 따라야 했으니 어린 라훌라의 마음고생이 엄청 컸을 것이다.

부처님께서도 그런 사정을 훤히 알고 계셨겠지만 아들 라훌라에게 해탈이라는 궁극적인 행복을 가져다주기 위해서 그런 고생을 시키신 것이었다. 라훌라를 진정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비록 자식이지만 출가시켜 세속의 영화보다는 궁극적인 진리의 열매를 맛보게 하셨던 것이다.

부모의 진정한 사랑은 자식을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라훌라, 밀행제일 부처님 십대제자 되다 진정한 사랑, “자식을 행복하게 살도록”

불러서 대야에 물을 떠와 당신의 발을 씻기라고 하셨다. 그렇게 해서 라훌라가 물을 떠와 부처님의 발을 다 씻겨 드리자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대야에 발 씻은 물을 보았느냐? 못 보았느냐?”

“네! 보았습니다.”

“그 물로써 밥을 짓거나 양치를 할 수 있었느냐?”

“다시 쓰지 못합니다. 이 물은 본래 깨끗했지만 지금 발을 씻어서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쓰지 못합니다.”

“너도 이와 마찬가지로. 너의 아들이요 국왕의 손자로서 세간의 영화와 부귀를 버리고 비록 사문이 되었으나 뜻을 바로잡고 몸을 지킬 생각을 아니하고, 삼독의 더러운 때가 가슴에 가득 찼으니, 마치 이 물을 다시 쓸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하시고 대야의 물을 버리게 하고 나서 다시 라훌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대야가 비었으니 거기에 음식을 담을 수 있겠느냐? 못 담겠느냐?”

“담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대야이며 깨끗하지 못한 것을 담았기 때문입니다.”

입을 조심하지 못하고, 추악한 말로써 중상을 많이 하면 모든 사람이 사랑하지 아니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아껴주지 않으며, 몸이 죽고 혼신이 떠나서 삼도(三道)에 윤회 전전하여, 나고 죽고 괴로움이 무량하더라도, 모든 부처님과 성현들이 애석해하지 않을 것이니, 이 또한 네가 대야를 아까워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부처님께서는 아들 라훌라에게 이렇게 훈계를 하셨다. 엄하면서도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애로운 마음이 엿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해서 라훌라는 마음을 잘 가꾸고 정진해서 나중에는 ‘밀행제일(密行第一)’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으며 당당히 부처님의 십대제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

라훌라가 이 한번 만의 훈계로 그렇게 훌륭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부처님의 끊임없는 질타와 지도에 의해서 바른 길로 접어들었을 것이다.

궁궐에서 마음껏 뛰놀며 부족한 것이 고생을 모르고 자랐을 라훌라가 즐지에 사문이 되어 어머니와도 헤어지고 주

부처님이야 성불을 목적으로 출가하신 분이며 자식에게도 그러한 길을 권하도록 하신 것이 당연하겠지만 대다수의 재가자들은 어떻게 자식을 가르쳐야 할까?

자기 자식을 스스로가 가르치는 것 보다는 교육기관이나 다른 스승에게 보내어 가르치는 것이 한결 쉬울 것이다. 오죽하면 옛말에도 남의 자식은 가르쳐도 자기 자식은 못 가르친다는 말이 있지 않겠는가?

자식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기대 때문에 바른 교육이 될 수가 없고 자식 또한

부모에 대해 너무 의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가르침이 제대로 전달되기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께서 자식에 대하여 엄하고도 자상한 가르침을 통하여 하나뿐인 아들을 ‘밀행제일’이라는 칭송을 듣는 훌륭한 아라한이 되도록 이끄셨던 것이다.

경전에는 이런 간단한 에피소드만 삼입되었지만 라훌라가 훌륭한 사문이 되기까지에는 지혜로운 부처님의 훈도가 있었음은 물론이다.

또한 여기에 더하여 일상생활에서 보여주시는 부처님의 훌륭한 덕성이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자기는 텔레비전을 보면서 자식들에게는 보지 말고 공부만 하라고 해서 그게 되겠는가?

자기는 책 한권 보지 않고 전화기만 들여다보고 놀면서 자식들에게는 공부에 집중하라고 한들 그게 먹혀들어갈

가? 총지중의 원정 종조님께서는 ‘자식은 부모의 그림자’라고 하셨다. 자식은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게 된다. 부모가 성실하면 자식이 성실하지 않을 수 없다.

요즘의 현대과학에 의하더라도 자식의 여러 가지 심적 장애는 부모로부터 영향 받은 것이 대부분이라고 한다. 자식이 잘되고 못되고는 단순한 가르침만으로는 부족하다.

부모의 지혜로운 훈육과 함께 성실하고 정직한 부모의 모습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자식은 내가 바라는 대로 성장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식을 잘 가르치려면 우선 내가 훌륭한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석가모니 부처님과 아들 라훌라 존자의 이야기를 통하여 배울 수 있다.

